

현대시 자료2번-(한계령을 위한 연가(문정희)-수능특강 82p 관련) [11~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2-6B 고2 서울시>

(가)

향단(香丹)아, 그넷줄을 밀어라.  
머연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 다수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벼갯모에 뇌이듯한 풀꽃데미로부터,  
자갈한 나비새끼 피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 듯이, 향단아.

산호(珊瑚)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채색(彩色)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 다오!

서(西)으로 가는 달같이  
㉠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 다오.  
향단아.

- 서정주, 「추천사」 -

(나)

향(香)아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취이던 오래  
지 않은 옛날로 가자

수수려거리는 수수발 사이 걸쩍스런 웃음들 들려 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들을  
두드러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 눈동자를 보이라 향아 회올리는 무지개빛 허울의 눈부심  
에 넋 빼앗기지 말고

철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미끈  
덩한 기생층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배기기 전으로 눈빛 아침처  
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음으로 찾아 가자꾸나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흉넝랑 그만 내자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바  
심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대로 가자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치마  
를 나누끼며 떼지어 춤추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 냇  
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 신동엽, 「향아」 -

[A]

(다)

한겨울 못 잇을 사람하고  
한계령쭈름 넘다가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  
뉴스는 다투어 수십 년 만의 풍요를 알리고

자동차들은 뒤뚱거리며  
제 구멍들을 찾아가느라 법석이지만  
㉣ 한계령의 한계에 못 이긴 척 기꺼이 묶였으면.

오오, 눈부신 고립  
사방이 온통 흰 것뿐인 동화의 나라에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면.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면 풍요는  
조금씩 공포로 변하고 현실은,  
두려움의 색채를 드리우기 시작하지만  
헬리콥터가 나타났을 때에도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는 않으리.  
헬리콥터가 눈 속에 갇힌 야생조들과  
짐승들을 위해 곶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시퍼렇게 살아 있는 젊은 심장을 향해  
까야만 포탄을 뿌려 대던 헬리콥터들이  
고라니나 꿩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자비롭게 곶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 나는 결코 옷자락을 보이지 않으리.

아름다운 한계령에 기꺼이 묶여  
난생 처음 짧은 축복에 몸둘 바를 모르리.

- 문정희, 「한계령을 위한 연가」 -

11.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청자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 ②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과거 상황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과거 경험으로부터 얻은 삶의 교훈을 드러내고 있다

12. <보기>의 ㉡와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바르게 고른 것은?

< 보 기 >  
(가)와 (나)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데 독특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그 방식에 차이가 있다. (가)는 명령  
의 형식을 빌려 [ ㉡ ] 하듯이 드러내고, (나)는 청유의  
형식을 빌려 [ ㉢ ] 하듯이 드러내고 있다.

- |      |    |      |    |
|------|----|------|----|
| ㉡    | ㉢  | ㉣    | ㉤  |
| ① 간청 | 설득 | ② 회유 | 제안 |
| ③ 간청 | 청탁 | ④ 회유 | 설득 |
| ⑤ 간청 | 강요 |      |    |

13. <보기>는 [A]에 대한 설명이다.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시인은 '밑다' → '내어 밑다' → '아주 내어 밑다' → '밑어 올리다'와 같이 시어를 반복, 변화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 ) 효과를 얻고 있다.

- ① 화자의 감정이 점차 고조됨을 부각하는
- ② 다양한 곳으로 독자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 ③ 공간적 배경이 점차 이동되어 감을 보여 주는
- ④ 시상을 감각스럽게 전환하여 주제를 강조하는
- ⑤ 시상의 전개에 따라 시간적 흐름을 역전시키는

1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체념적 어조로 한계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고 있다.
- ② ㉡는 청자가 각성하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는 역동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④ ㉣는 동음이의어를 사용하여 절망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⑤ ㉤는 부사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강한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15. <보기>를 바탕으로 (다)의 시어를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시어의 의미는 어휘의 사전적 의미만이 아니라 다른 시어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둠'이라는 하나의 시어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 '절망'이라는 부정적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고, '평온함'이라는 긍정적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 ① '폭설'은 '만나고 싶다'와 관련지어 보면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군.
- ② '자동차들'은 '범석이지만'과 관련지어 보면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군.
- ③ '고립'은 '눈부신'과 관련지어 보면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군.
- ④ '동화의 나라'는 '뭉였으면'과 관련지어 보면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군.
- ⑤ '헬리콥터'는 '포탄'과 관련지어 보면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군.

한계령을 위한 연가(문정희) <12-6B 고2 서울시>

[11-15]

11. [출제 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㉔ (가)에서 화자는 그네를 타고 비상함으로써 현실의 굴레에서 벗어나 초월적 이상세계로 가고자 한다. (나)에서 화자가 '향'에게 가자고 하는 '우리들의 고향'은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세계라고 할 수 있다. (다)에서도 화자는 폭설로 인해 고립되는 상황에 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폭설을 현대 물질문명의 위선에서 벗어나 평화를 누리는 '축복'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 ㉑ (가)와 (나)에서 청자가 직접적으로 등장하기는 하지만 연민의 감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㉓ (나)에서만 찾을 수 있다. ㉒ (다)에서만 찾을 수 있다.

12. [출제 의도] 작품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㉑ (가)의 화자는 '~밀어라', '~밀어다오'라는 명령문을 사용하고 있으나 간청하듯이 말하며 초월적 이상세계를 향한 자신의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 화자는 '~가자', '~가자구나' 등의 청유문을 사용하여 화자를 설득하듯이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청자뿐 아니라 화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순수하고 건강했던 시절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오답 풀이] ㉒ '회유'는 어투만지고 잘 달래어 시키는 말을 듣도록 한다는 뜻인데 (가)에서 화자가 향단을 달래는 듯이 말하는 부분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나)의 4연에서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등의 표현을 보면 청자에게 선택권을 주고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의 말을 들어달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㉓ (나)에서 화자가 무언가 이익을 바라고 청탁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13. [출제 의도]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㉑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만도 강조의 의미가 있는데 단순 반복이 아니라 점차 강한 표현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를 통해 '밀다'라는 동사에 담긴 화자의 이상향을 향한 열망이 점차로 고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에서는 이뿐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정이 점차 고조되는 것을 찾을 수 있는데, 처음에는 배가 항구를 떠나서 완만한 수평이동에서 나중에는 파도가 치는 수평수직이동으로 전환되는 것 등도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

[오답 풀이] ㉒ 다양한 곳이 아니라 화자가 지향하는 한 곳으로 집중된다. ㉓ 공간적 배경은 그네에 한정되어 있다. ㉒ [A]에서 사상이 갑자기 전환되는 부분은 없다. ㉓ 시간의 흐름은 순행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14. [출제 의도] 시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㉒ ㉒에서 '한계령의 한계'라고 하는 부분은 일종의 언어유희로 볼 수 있다. '한계령(寒溪嶺)의 한계(限界)'는 동음이의어를 이용하여 고립되는 상황을 표현한 것인데, 화자는 그런 고립을 축복이라고 여기고 있으므로, ㉒와 절망감은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㉑ 화자는 그네를 타고 날아오름으로써 현실을 벗어나 이상세계를 향해 날아오르려 했다. 그러나 그네에 매달려 있는 이상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㉒ '눈동자'는 자신이 헛된 일에 빠져들고 있음을 깨닫고 거기에서 벗어나 도둑 하는 존재이다. ㉓ '넷물이 끊이치는' 역동적인 모습을 통해 소박하고 건강한 마음을 되찾고자 하는 모습이 생동감 있게 드러난다. ㉔ 화자는 헬리콥터가 내미는 도둑의 손길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거부하고 있다. 헬리콥터가 살인의 도구였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결코'라는 부사어를 사용하여 이러한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15. [출제 의도]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㉒ '동화의 나라' 즉 폭설에 묶이고 싶다는 것은 폭설을 축복으로 보는 (가)의 전체적인 시각과 일치한다. 따라서 '동화의 나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시어로 볼 수 있으며, 이어지는 '뭉였으면'까지도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㉒ 자동차들은 법석을 떨면서 '제 구멍'(현실적 삶이 공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화자가 지향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한계령을 위한 연가(문정희), 깨끗한 식사(김선우) - 수능특강 82p, 314p 관련〉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어떤 이는 눈망을 있는 것들 차마 먹을 수 없어 채식주의자가 되었다는데 ㉠ 내 접시 위의 풀들 깊고 말간 천 개의 눈망울로 뻘뻘 나를 쳐다보기 일쑤. 이 고요한 사냥감에도 핏물 자박거리고 꿈틀거리며 욕망하던 뒀안 있으니 내 앉은 접시나 그들 앉은 접시나 매일반. 천 년 전이나 만 년 전이나 생식을 할 때나 화식을 할 때나 육식이나 채식이나 매일반.

문제는 내가 떨림을 잃어간다는 것인데, 일테면 ㉡ 만 년 전의 내 할아버지가 알락고리암사슴의 목을 돌도끼로 내려치기 전, 두렵고 고마운 마음으로 올리던 기도가 지금 내게 없고 (시장에도 없고) 내 할머니들이 돌칼로 어린 죽순 밑동을 끊어 내던 순간, 고맙고 미안해하던 마음의 떨림이 없고 (상품과 화폐만 있고) 사뭇 괴로운 포즈만 남았다는 것.

내 몸에 무언가 공급하기 위해 ㉢ 나 아닌 것의 숨을 끊을 때 머리 가죽부터 한 터럭 뿌리까지 남김없이 고맙게, 두렵게 잡숫는 법을 잃었으니 이제 참으로 두려운 것은 내 올라앉은 육중한 접시가 언제쯤 깨끗하게 비워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 도대체 이 무거운, 토막 난 몸을 끌고 어디까지!  
- 김선우, 「깨끗한 식사」 -

(나)

한겨울 못 잇을 사람하고  
한계령쯤을 넘다가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  
뉴스는 다투어 수십 년 만의 풍요를 알리고  
자동차들은 뒤뚱거리며  
제 구멍들을 찾아가느라 법석이지만  
한계령의 한계에 못 이긴 척 기꺼이 묶였으면

오오, 눈부신 고립  
사방이 온통 흰 것뿐인 동화의 나라에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면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면 풍요는  
조금씩 공포로 변하고, 현실은  
두려움의 색채를 드리우기 시작하지만  
헬리콥터가 나타났을 때에도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는 않으리

헬리콥터가 눈 속에 갇힌 야생조들과  
짐승들을 위해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 시퍼렇게 살아 있는 젊은 심장을 향해  
까야만 포탄을 뿌려대던 헬리콥터들이  
고라니나 꿩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자비롭게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 나는 결코 옷자락을 보이지 않으리

아름다운 한계령에 기꺼이 묶여  
난생 처음 짧은 축복에 몸 둘 바를 모르리  
- 문정희, 「한계령을 위한 연가」 -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계절의 흐름을 통해 대상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화자의 바람을 전달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는 (나)와 달리 유사한 구절의 반복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나)는 사물의 속성을 분석하여 존재의 고독감을 강조하고 있다.

2.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대상을 의인화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표현하고 있다.
- ② ㉡은 가정의 진술을 활용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상황의 구체적 묘사를 통해 타자의 희생에 대한 감정이 희박해지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 ④ ㉣은 어법에 어긋난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이 지닌 긍정적 면모를 제시하고 있다.
- ⑤ ㉤은 유사한 문장 형태를 변주하여 화자의 적극적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생태주의는 환경 문제를 사회 구조 전반의 문제와 함께 통찰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생태주의 경향의 시에서 확인되는 상징들은 단순히 환경 문제 해결만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존재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대안적 미래를 고민한다는 점에서 생태주의의 이론적 특성과 맞닿아 있다. 한편 시에서의 생태주의적 상상력은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자연을 공간적 배경으로 삼거나 자연물을 주요 소재로 채택하여 묘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상황에서든 자연에 대한 존중을 표하는 작업 자체가 작품의 주제 의식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 ① (가)는 자연물을 중심 소재로 활용하여 생명체의 순환성과 생명의 희생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 ② (가)는 자연 존중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직접 제시하여 생명 윤리와 생명의 가치에 대한 성찰을 보여 주고 있군.
- ③ (나)는 자연을 공간적 배경으로 삼아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완전한 사랑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군.
- ④ (가)는 자연과의 교감 의지를 통해, (나)는 자연과의 대결 의지를 통해 사회 구조의 전반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군.
- ⑤ (가)는 자연의 희생을 묘사한 상징을 활용하여, (나)는 자연 환경을 묘사한 상징을 활용하여 작품의 주제 의식을 구체화하고 있군.

깨끗한 식사(김선우) / 한계령을 위한 연가(문정희)

01. [출제 의도] 표현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한다.

③ (가)의 '도대체 이 무거운, 토막 난 몸을 끌고 어디까지!'와 (나)의 '오오, 눈부신 고림에서 공통적으로 영탄법이 확인되고 있다. 모두 화자의 감정을 강조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는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 있긴 하지만 계절의 흐름을 통해 대상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지 않으며, (가)에서는 계절의 흐름이 특별히 부각되고 있지 않다. ② (가)와 (나) 모두 '나'라는 시어를 통해 화자의 존재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유사하나, 청자를 특정하는 표현이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④ (나)에서 오히려 유사한 구절의 반복이 드러나 있다. ⑤ (가)와 (나) 모두 존재의 고독감을 강조한다고 보기 어렵다.

02. [출제 의도] 구절의 의미를 맥락에 맞게 이해한다.

④ ㉔의 '헬리콥터들'은 생명을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는 것으로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까야만 포탄'은 '젊은 심장을 향해' 뿌려진 것으로 어떤 존재를 죽일 때 사용되는 것으로 긍정적 측면을 설명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㉔을 통해 화자가 '집시 위의 풀'과 같은 식물 또한 생명을 지닌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㉔은 '만 년 전'이라는 시간 전 존재했던 '내 할아버지'의 태도를 제시함으로써 '나'의 문제점을 드러낸다. ③ ㉔은 다른 생명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먹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그러한 태도를 갖추지 않는 이들을 비판하고 있다. ⑤ ㉔은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는 않으리'라는 앞의 구절을 변형하여 쓰인 것으로, 한계령에 남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03. [출제 의도] 주어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한다.

④ (가)의 화자는 인간의 삶으로 인해 다른 존재가 희생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사회 구조의 전반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의 화자는 자연과의 대결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의 화자는 '내 몸에 무언가 공급하기 위해 나 아닌 것의 숨을 쉴 때 일어나는 일을 생각하며 고맙고 두려운 마음으로 식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가)의 화자는 '문제는 내가 별립을 잃어간다는 것'이라 고백하면서 다른 존재의 희생에 감사를 느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생명 윤리와 생명의 가치에 대한 성찰을 보여 주고 있다. ③ (나)의 화자는 '폭설이 내린 한계령'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묘사함으로써 그 공간 안에 고립되어 '한겨울 못 잇을 사람'과 함께 묶여 있고 싶다고 말한다. ⑤ (가)의 화자는 자연의 희생과 삶에 주목하여, (나)의 화자는 자연환경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각각의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꽃덤불(신석정) - 수능특강 85p 관련>  
[34~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6-09 고3 평가원>

(가)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달빛이 흡사 비 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우리는 험어진 성터를 헤매이면서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묘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멀리 떠나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몸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맘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서른여섯 해가 지나갔다.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가리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 보리라.

- 신석정, 「꽃덤불」 -

(나)

㉣ 사랑한다는 것은

열매가 맺지 않는 과목은 뿌리째 뽑고  
그 뿌리를 썩힌 흙 속의 해충은 모조리 잡고  
그리고 새 묘목을 심기 위해서  
깊이 파헤쳐 내 두 손의 땀을 섞은 흙  
그 흙을 깨끗하게 실하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 아무리 모진 비바람이 삼킨 어둠이어도  
바위 속보다도 어두운 밤이어도  
그 어둠 그 밤을 새워서 지키는 일이다.  
흰한 새벽 햇살이 퍼질 때까지  
그 햇살을 뚫고 마침내 새 과목이  
샘물 같은 그런 빛 뿌리면서 솟을 때까지  
지키는 일이다. 지켜보는 일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 전봉건, 「사랑」 -

(다)

1

㉥ 보리. 너는 차가운 땅속에서 온 겨울을 자라 왔다. 이미 한 해도 저물어, 벼도 아무런 곡식도 남김없이 다 거두어들이 뒤엔, 해도 짧은 늦은 가을날, 농부는 밭을 갈고 논을 잘 손질 하여서, 너를 차디찬 땅속에다 깊이 묻어 놓았었다. 차가움에 응결된 흙덩이들을 호미와 고무래로 날날이 부숴 가며, 농부는 너를 추위에 얼지 않도록 주의해서 굳고 **차가운 땅속**에 깊이 심어 놓았었다. "씨도 제 키의 열 길이 넘도록 심어지면, 움이 나오기 힘이 든다."는 옛 가르침을 잊지 않으며, 농부는 너를 정성껏 땅속에 묻어 놓고, 이에 늦은 가을의 짧은 해도 서산을 넘은 지 오래고, 날개를 자주 저어 까마귀들이 깃을 찾아간 지도 오랜, 어두운 들길을 걸어서 농부는 희망의 봄을 머릿속에 간직하며, 굳어진 허리도 있으면서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2

물도 흐르지 않고, 다 말라 버린 갯강변 발둑 위에는 앙상한 가시덤불 밑에 늦게 핀 들국화들이 찬 서리를 맞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논둑 위에 깔렸던 잔디들도 푸른빛을 잃어버리고, 그 맑고 높던 하늘도 검푸른 구름을 지니어 찌푸리고 있는데, 너, 보리만은 차가운 대기 속에서 솔잎과 같은 새파란 머리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솟아오르고만 있었다. 이제, 모든 화초는 지심(地心) 속에 따스함을 찾아서 다 잠자고 있을 때, 너, 보리만은 억센 팔들을 내뻗치고, 셋말간 얼굴로 **생명의 보금자리**를 깊이 뿌리박고 자라 왔다. 날이 갈수록 해는 빛을 잃고 따스함을 잃어도 너는 꿈쩍도 아니하고 그 푸른 얼굴을 잃지 않고 자라 왔다. 칼날같이 매서운 바람이 너의 등을 밀고, 얼음같이 차디찬 눈이 너의 온몸을 덮어 억눌러도, 너는 너의 푸른 생명을 잃지 않았었다. 지금, 어둡고 차디찬 눈 밑에서도, 너, 보리는 장미꽃 향대를 풍겨 오는 그윽한 유월의 훈풍과 노고지리 우짖는 새파란 하늘과, 산 밑을 흰히 비추어 주는 태양을 꿈꾸면서, 오로지 기다림과 희망 속에서 아무 말이 없이 참고 견디어 왔으며, 삼월의 맑은 하늘 아래서 아직도 쌀쌀한 바람에 자라고 있었다.

3

춥고 어두운 겨울이 오랜 것은 아니었다. 어느덧 남향 언덕 위에 누웠던 잔디가 파아란 속잎을 날리고, 들판마다 민들레가 웃음을 웃을 때면, 너, 보리는 논과 밭과 산등성이에까지, ㉦ 이미 푸른 바다의 물결로써 온 누리를 뒤덮는다. 낮은 눈에도, 높은 밭에도, 산등성이 위에도 보리다. 푸른 보리다. 푸른 봄이다. 아지랑이를 몰고 가는 봄바람과 함께 온 누리는 푸른 봄의 물결을 이고, 들에도, 언덕 위에도, 산등성이 위에도, **봄의 춤**이 벌어진다. 푸르른 생명의 춤, 셋말간 봄의 춤이 흘러 넘친다. 이윽고 봄은 너의 얼굴에서, 또한 너의 춤 속에서 노래하고 또한 자라난다. 아침 이슬을 머금고, 너의 푸른 얼굴들이 새날과 함께 빛날 때에는, 노고지리들이 쌍쌍이 짝을 지어 너의 머리 위에서 봄의 노래를 자지리지게 불러 대고, 또한 너의 **깊고 이룩한 품속**에 깃을 들이고, 사랑의 보금자리를 틀어 놓는다.

- 한혹구, 「보리」 -

34.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대조를 통해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색채어를 통해 새롭게 나타난 것들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지향하는 세계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자연물을 소재로 하여 서로 대립하던 것들이 타협에 이른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시련과 고난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기대가 실현되기 이전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35. ㉠~㉣에 나타난, 말하는 이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일상을 권태롭게 여기는 태도가 '항상'을 통해 부각되고 있다.
- ② ㉡: 불행했던 시절이 되돌아올 것에 대비하려는 태도가 '드디어'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 ③ ㉢: 부정적 상황이 온전히 극복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태도가 '아직도'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 ④ ㉣: 적대적인 것들로 인해 당황하는 태도가 '아무리'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 ⑤ ㉣: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실망스럽게 여기는 태도가 '이미'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사랑이 이루어진 상황을 사랑의 결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랑을 이루기 위해 지극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로 마음먹는 것만으로 사랑의 결실을 얻을 수는 없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아야 하고, 그 대상을 빼앗으려 하거나 위협하는 것들에 맞서야 한다. 이는 연인은 물론 다른 대상을 향한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① (가)에서 '헐어진 성터'를 헤매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② (가)에서 '몸'과 '맘'을 팔아버린 벗들의 삶은 사랑하는 대상을 되찾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 ③ (나)에서 '흙 속의 해충을 제거하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협하는 것들에 맞서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 ④ (나)에서 '맘'을 세우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고 위협적인 상황으로부터 그 대상을 지키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 ⑤ (가)의 '어느 언덕 꽃뫼밭'에 안기는 것과 (나)의 '새 과목'이 솟는 것은 노력을 통해 얻으려 하는 사랑의 결실을 의미한다.

37.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시상 전개와 단서로서 마지막 연과 대응되어 작품의 주제를 강조한다.
- ② ㉡는 글의 첫머리에 제시되어, 이어질 내용이 자연 친화적 이념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③ ㉠은 사물에 비유됨으로써 경외감을, ㉡는 다른 대상과 비교됨으로써 비장감을 자아낸다.
- ④ ㉠은 시행 하나로 연이 구성되어, ㉡는 낱말 하나로 문장이 구성되어 이후 드러날 인간 소외의 양상을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 ⑤ ㉠, ㉡는 모두 존재의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38. <보기>를 참고할 때 (다)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보리」에서 글썽이는 파종된 보리가 자라는 과정을 인간의 삶에 접목하여 그 인격적 속성을 제시함으로써 보리의 모습에서 알 수 있는 다양한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① '차가운 땅속'에서 추위를 견디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견디는 인내심을 드러내고 있군.
- ②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강인한 의지와 진취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군.
- ③ '생명의 보금자리'를 깊이 뿌리박고 자라나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끈질긴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군.
- ④ '봄의 춤'으로 표현된 보리의 모습을 통해, 성숙해질수록 겸손함을 잃지 않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군.
- ⑤ 노고지리에게 '깊고 아늑한 품속'을 내어 주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포용과 배려로 추위와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군.

꽃뭉치(신석경) <16-9AB 고3 평가원>

[34-38]

34. [출제 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㉔ (가)의 '헐어진 성터', (나)의 '뿌리를 썩힌 흙 속의 해충', (다)의 '어둠과 차디찬 눈 밑' 등의 표현은 시련과 고난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화자의 이러한 기대가 실현되기 이전의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오답 풀이] ㉑ (가)-(다) 모두 화자가 기대하는 상황과 그 이전 상황의 대비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㉒ 선택어가 일부 사용되고 있으나 새롭게 나타난 것들이라고 볼만한 대상이 없다. ㉓ 자연물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서로 대립하던 대상들이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35. [출제 의도] 구절의 의미 파악

㉓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에서 '겨울밤', '차거니'는 부정적 상황을 드러내고 '아직도'는 이러한 상황이 온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래서 화자는 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 ㉑ '항상'은 '기록한 이야기'를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할 수 있었다는 의미로 일제 강점기의 어두운 현실을 드러내는 시어이다. ㉒ '드디어'는 일제 강점기의 어두운 현실이 비로소 지나갔음을 의미한다. ㉔ '아무리'는 격대적인 것들이 화자의 사랑을 위협해도 이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부각하는 것에 가깝다. ㉕ '이미'에는 겨울을 이겨내는 보리의 생명력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태도가 담겨 있다.

36. [출제 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이해

㉒ (가)의 '몸'과 '맘'을 팔아버린 벗들은 자신의 사랑을 지켜내지 못한 사람 들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이들의 삶은 사랑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며, 위협적인 대상에게서 사랑을 지켜내지 못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오답 풀이] ㉑ '헐어진 성터'는 사랑하는 대상이 훼손되었음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㉓ '해충'은 과목을 해치는 존재이므로 위협에 맞서려는 노력에 해당한다. ㉔ '맘'은 부정적 상황이라도 '맘을 새워서 지키는 일'은 대상을 지키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㉕ '꽃뭉치'과 '새 과목'은 모두 화자가 바라는 긍정적 상황이므로 사랑의 결실에 해당한다.

37. [출제 의도] 소재의 기능 파악

㉑ '사랑의 의미'라는 (나)의 주제로 볼 때 ㉒는 1행으로 이루어져 1연을 이루고 있으므로 시상 전개는 단서로 기능하고 있고, 첫 연과 끝 연에서 반복되고 있으므로 그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㉒ (나)에서 자연친 화적 이념의 역사를 다룬 내용을 찾기 어렵다 ㉓ ㉑에서 경외감은 드러나지 않고, ㉕는 비교를 통해 비장감을 자아내고 있지 않다. ㉔ ㉑와 ㉕ 모두 인간 소외의 양상을 압축하고 있지 않다. ㉕ ㉑와 ㉕ 모두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것과 무관하다.

38. [출제 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이해

㉑ '봄의 춤'으로 표현된 보리의 모습은 '온 누리'에 보리의 푸른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㉑ 추위를 견디는 모습은 인내심과 연결하여 감상할 수 있다. ㉒ 보리가 성장하는 모습이므로 보리의 강인한 의지와 관련되어 있다. ㉓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을 잃지 않는 보리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㉕ 노고지리들이 보리에 보금 자리를 틀어 놓는 것과 연결되므로 보리와 다른 자연물들의 조화를 엿볼 수 있다.

<산상의 노래(조지훈), 꽃덤불(신석정) - 수능특강 85p 관련>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높으니 높은 산마루

㉠ 낮은 고목(古木)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 왔는가.

㉡ 아아 이 아침

시들은 꿇족의 굵이굵이로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이제 눈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나래 떨던 셋별아 숨으라.

환히 트이는 이마 위

떠오르는 햇살은

시월상달의 꿈과 같구나.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의

㉢ 가락을 더듬노니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싸릿순을 사양하라.

여기 높으니 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 조지훈, 「산상의 노래」 -

(나)

태양(太陽)을 의논(議論)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太陽)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달빛이 흡사 비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우리는 혈어진 성(城)터를 헤매이면서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묘한 태양(太陽)을 모시겠느냐고

㉣ 가슴을 쥐어 뜯으며 이야기하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 뜯지 않았느냐?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 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멀리 떠나 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몸을 팔아 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맘을 팔아 버린 벗도 있다.

㉤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서른여섯 해가 지나갔다.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오는 봄에 분수(噴水)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 보리라.

- 신석정, 「꽃덤불」 -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미상관의 방법을 통해 정서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역설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하고 있다.
- ③ 부정적 현실을 포용하려는 여유로운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어둠과 밝음의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⑤ 관조적인 자세를 통해 대상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있다.

2.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시는 광복을 맞이한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런데 화자는 광복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민족의 미래에 대한 또 다른 이상을 염원하고 있다. 화자는 광복 이전 자신의 모습을 생명력을 상실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하지만 광복을 통해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희망을 가지게 된 화자는 민족의 미래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앞을 내다보는 지사적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① '긴 밤'이 광복을 염원하는 때라면, '아침'은 염원하던 광복이 이루어진 시간이라 할 수 있겠군.
- ② '시들은 꿇족'이나 '메마른 입술'은 광복 이전에 생명력을 상실한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겠군.
- ③ '종소리'가 울리고 '피가 돈다'는 것은 광복을 통해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되었음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④ '사슴과 토끼'가 '싸릿순을 사양'한다는 것은 광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대상들이 존재함을 나타내겠군.
- ⑤ '높으니 높은 산마루' 위에서 '노래하는' '내' 모습은 민족의 미래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앞을 내다보는 모습이라 하겠군.

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직유적 표현을 통해 고뇌하는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② ㉡은 영탄법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감각적 전이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반복법과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은 시간과 관련된 표지를 사용하여 시대적 상황을 알려주고 있다.

4.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시는 광복이 되었음에도 좌우익의 이념 갈등으로 시련을 겪고 있는 상황과 주체적인 역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연합군 세력에 의해 일제 강점에서 해방됨으로써 새로운 모순을 담고 있는 혼란한 사회상을 그리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시인은 혼란한 사회상을 극복하고 조국의 완전한 독립과 화합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기 위해 이 시를 창작했다고 볼 수 있다.

- ① '오는 봄'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 맞이하는 진정한 광복의 시간이라 볼 수 있겠군.
- ② '달빛'은 혼란한 현실 속에서 이념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라 볼 수 있겠군.
- ③ '태양을 등진 곳'은 일제 강점 하의 어둡고 암담한 현실을 나타내는 곳이라 할 수 있겠군.
- ④ '겨울밤 달'은 좌우익의 이념 갈등으로 시련을 겪고 있던 광복 직후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⑤ '꽃땀'은 민족 간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우리 민족이 장차 이루어야 할 조국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겠군.

산상의 노래(조지훈), 꽃땀(신석경)

1. [정답] ④ (가)는 '긴 밤'과 '아침'이, (나)는 '태양을 등진 곳', '달', '밤' 등과 '태양', '봄', '꽃땀'이 대립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변형된 수미상관의 구조를 방법을 통해 화자의 처지와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나)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② (가), (나) 모두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과거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③ (가), (나)에서 대상에 대한 경의감을 표출하고 있지 않다. ⑤ 관조적 자세란 시적 대상과 거리를 두고 대상을 차분하고 담담하게 바라보고 음미하며 느낌이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데 (가)에는 그런 관조적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2. [정답] ④ '사슴과 토끼'가 '짜릿순을 사양'한다는 것은 광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대상이 존재함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풍촌의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긴 밤'은 일제 강점기 때를 말하는 것으로 화자 입장에서는 광복을 염원하는 때이며, '아침'은 조국의 광복을 맞이하는 때기에 염원하던 광복이 이루어진 시간이라 할 수 있다. ② '시들은 꿩'이나 '메마른 입술'은 광복 이전에 약해진 심신으로 인해 일제 강점기에 생명력을 잃은 화자의 모습을 형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종소리'는 간구의 대상인 광복이 왔음을, 피가 든다는 것은 광복을 통해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되었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⑤ '높으디 높은 산마루' 위에서 '노래하는' '내' 모습은 민족의 미래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앞을 내다보는 선구자적 모습이라 할 수 있다.

3. [정답] ② 영탄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을 뿐, 대상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③ 피리는 청각인데 이를 더듬는다고 표현하였으므로 감각의 전이(공감각)가 맞다.

4. [정답] ② '달빛'은 '달빛이 흙사 비 오듯 쏟아지는 밤'에서 달빛이 있다 해도 그것이 밤인 이상 어둠일 수밖에 없기에 '혈어진 성터를 해매이면서', '가슴을 쥐어 뜯으며' 조국 광복을 갈망하였던 것이므로 시대적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라 보기 어렵다.

<산상의 노래(조지훈), 꽃덤펀(신석정) - 수능특강 85p 관련>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높으니 높은 산마루  
 낮은 고목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 왔는가

아아 이 아침  
 시들은 꿇족의 굽이굽이로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이제 눈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나래 떨던 셋별아 숨으라.

환히 트이는 이마 위  
 떠오르는 햇살은  
 시월상달의 꿈과 같고나

㉠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싸릿순을 사양하라

여기 높으니 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 조지훈, 「산상의 노래」 -

(나)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달빛이 흡사 비 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우리는 헐어진 성터를 헤매이면서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묘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영영 멀리 떠나 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몸을 팔아 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맘을 팔아 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서른여섯 해가 지나갔다.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오는 봄에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어느 언덕 꽃덤펀에 아늑히 안겨 보리라.

- 신석정, 「꽃덤펀」 -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가)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나)는 상징적 시어를 통해 화자의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대조적 어휘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2.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고독감을, ㉡은 화자의 절망감을 암시하고 있다.
- ② ㉠은 화자의 기대감을, ㉡은 화자의 안타까움이 내재되어 있다.
- ③ ㉠과 ㉡은 모두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과 ㉡은 모두 과거의 상황이 현재까지 지속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과 ㉡은 모두 자연에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3.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와 (나)는 광복 직후에 쓰인 시로, 일제 강점기로부터 벗어나 광복을 맞이한 혼란스러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가)의 화자는 광복을 맞이한 기쁨을 드러내며 동시에 민족의 미래에 대한 이상을 염원하고 있다. (나)의 화자는 일제 강점기부터 광복 직후까지의 과정과 상황, 미진한 부분들을 밝힌 후, 비판적이며 회상적인 어조로 조국의 희망적인 미래를 염원하고 있다.

- ① (가)의 화자는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를 통해 광복 이후 조국의 미래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군.
- ② (가)의 '긴 밤'은 화자가 '무엇'을 간구하며 운 시간으로, 독립을 기다렸던 일제 강점기의 시대 현실을 나타내고 있군.
- ③ (나)의 '꽃덤펀'은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난 광복 직후의 민족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군.
- ④ (나)의 화자는 '이야기하며 이야기하며'를 통해 국권 회복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군.
- ⑤ (나)의 '그러는 동안에'를 통해 일정 강점기에 겪었던 아픔을, '드디어'를 통해 광복을 맞이한 기쁨을 드러내고 있군.

## 산상의 노래(꽃뭉치) / 꽃뭉치(신석정)

## 1. [출제 의도] 각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① (가)에서 부분적으로 과거 회상하는 장면이 있지만,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아닌, 광복된 민족의 앞날에 대한 기대와 미래에 대한 조망을 중심으로 사상이 전개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가)는 1연의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 왔는가'라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독립의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③ (나)는 '꽃뭉치'로 바라는 세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④ (나)는 3연에서 '그리는 동안에 영영 ~ 있다'라는 문장의 반복을 통해 일제 강점하의 비극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⑤ (가)는 '긴 밤'과 '아침'이라는 대조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사용하여, (나)는 어둠과 밝음, 차가움과 따뜻함의 대립적 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2. [출제 의도] 각 작품에 제시된 시구의 의미와 화자의 정서를 적절하게 파악한다.

② ㉠은 화자가 광복을 맞이하여 희망을 갖게 된 모습을, ㉡은 화자가 인식하는 광복 후의 혼란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은 화자가 설렘을 느끼는 상황인 반면, ㉡은 화자가 안타까움을 느끼는 현실의 모습이다.

**[오답 풀이]** ① ㉠은 화자가 맞이한 현실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는 고독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은 화자가 비판적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지만 희망을 갖는 내용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아 절망을 느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은 화자의 기대감과 긍정적인 인식이 드러나는 것으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라고 볼 수 없다. ㉡은 이제 희망을 느끼는 상황으로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은 자연에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맞이한 세상을 상징한다. ㉡은 자연에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인식하는 현실을 말한다. ⑤ ㉠과 ㉡은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다.

## 3. [출제 의도]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통해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

③ '꽃뭉치'는 화자가 바라는 '민족의 화합이 이루어진 완전한 민족 국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시어이다.

**[오답 풀이]** ① (가)의 화자는 광복 후에도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기>를 통해 '무엇'을 '화합된 조국의 모습'으로 유추할 수 있고 이것은 화자가 광복 직후에 가진 민족에 대한 새로운 염원으로 볼 수 있다. ② (가)의 화자는 일제 강점기의 시간을 '내 홀로 긴 밤'으로 표현하여 인고의 시간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④ (나)의 화자는 '이야기하며'의 반복을 통해 국권 회복에 대한 열망을 강조하고 있다. ⑤ (나)의 화자는 '드디어'라는 시어를 사용함으로써 광복의 기쁨을 드러내고 있다.

〈사령(김수영) - 수능특강 88p 관련〉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8학년도 대수능>

(가)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내 호올로 어딜 가라는 ㉠ 슬픈 신호나

㉡ 긴— 여름 해 황망히 나래를 잡고

㉢ 늘어진 고층(高層) 창백한 묘석(墓石)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잠초인 양 형클어진 채  
사념(思念) 병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

㉤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고 왔기에  
길—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 김광균, 「와사등」 -

(나)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어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잠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 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正義)도 우리들의 섬세(纖細)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 김수영, 「사령(死靈)」 -

(다)

평생에 원하는 것이 다만 **충효**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나 다름쓰나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 년을 허둥대노라 <제1수>

**계교(計較)\*** 이렇더니 공명이 늦었어라  
부급동남(負笈東南)\*해도 이루지 못할까 하는 뜻을  
㉠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하여라 <제2수>

비록 못 이뤄도 **입천(林泉)**이 좋으니라  
무심어조(無心魚鳥)는 절로 한가하니  
조만간 세사(世事) 잊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 <제3수>

강호에 놀자 하니 임금을 저버리겠고  
임금을 섬기자 하니 즐거움에 어긋나네  
혼자서 기로에 서서 갈 데 몰라 하노라 <제4수>

어찌라 이러구러 이 몸이 어찌할꼬  
행도(行道)도 어렵고 은둔처도 정하지 않았네  
언제나 이 뜻 결단하여 내 즐기는 바 좇을 것인가 <제5수>  
- 권호문, 「한거십팔곡(閑居十八曲)」 -

\* 계교: 서로 견주어 살펴봄.

\* 부급동남: 이리저리 공부하러 감.

1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에서 화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한다.
- ② (가), (다)에는 미래에 대한 화자의 확신이 나타나 있다.
- ③ (나), (다)에는 부정적인 세계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지가 나타나 있다.
- ④ (가), (나), (다)에서 화자는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에는 삶에 대한 화자의 고뇌가 나타나 있다.

14. (가)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조적 어휘를 반복하여 공간의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 ② 의인화를 통해 사물의 속성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 ③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④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역설과 반어를 통해 화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5.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와 달리 상승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 ② ㉡는 ㉠와 달리 관습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 ③ ㉠, ㉡ 모두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④ ㉠, ㉡ 모두 대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 ㉡ 모두 시간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16. (가)의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시어로 보기 어려운 것은?

< 보 기 >

서정적 자아는 세계를 내면화한다. 이런 작용으로 서정시에서 자아는 상상적으로 세계와 하나가 된다. 그렇지만 근대 이후의 문명사회에서 자아와 세계의 조화나 통일은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근대 이후의 서정시에서는 자아와 세계 사이의 분열에 대한 자아의 반응을 함축하고 있는 시어들이 자주 나타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7.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하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김수영은 1955년 6월 성북동에서 서강으로 이사하였다. 서강에서의 생활은 피폐해진 그의 몸과 마음을 점차 회복시키고, 그로 하여금 오랜만에 안정을 누리게 했다. 그가 이전과는 달리 생활에 대한 긍정을 시에 담아내었던 것도 그러한 안정과 관련이 깊다. 하지만 생활에 대한 시인의 긍정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줄곧 이상과 현실을 문제 삼으면서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설움과 비애를 느껴 왔던 시인은 다시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겨 내려고 애를 썼다. 이러한 서강에서의 생활은 1959년에 발표된 「사령(死靈)」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 ① '자유'는 시인이 추구하던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어.
- ②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은 이상을 묵묵히 실천하려는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겠어.
- ③ '고요함'은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시인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④ '욕된 교외'는 서강에서의 생활에 대한 시인의 성찰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
- ⑤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설움과 비애를 함축하는 말이겠군.

18.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연시조는 단순히 평시조 몇 작품을 병렬적으로 늘어놓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체로 각 작품들이 일관된 체계에 따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시조는 질서 정연한 구성을 보이게 마련이다.

- ① 제1수는 시상 전개와 단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 ② 제2수의 '계교'는 제1수의 '충효'와 관련되어 있다.
- ③ 제3수의 '임천'의 좋은 점이 제2수에 드러나 있다.
- ④ 제4수는 제2수와 제3수의 내용을 아우르고 있다.
- ⑤ 제5수는 제4수의 내용을 변주하여 시상을 심화하고 있다.

사령(김수영) <08학년도 대수능>

[13-16]

13. [출제 의도] 비판적 사고(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㉓ (가)의 화자는 도시 속에서 방향성을 잃고 삶의 비애에 잠겨 있다. 낯설은 거리와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여 있지만 정작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있다. 고뇌의 원인은 뚜렷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화자가 고뇌에 자 있음은 분명히 드러나 있다. (나)의 화자는 자유를 말하고 있는 활자를 고개 숙이고 들으면서 침묵하고 있는 자기 자신과 중요한 현실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 행동을 해야 함을 알면서도 죽음이 라는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화자는 이러한 자신을 못마땅해 하고 있다. (다)의 화자는 충효를 실천하는 공명의 길과 강호에서 자연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길 사이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를 몰라 갈등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화자의 고뇌는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화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도피하려는 시도나 의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나)의 화자 또한 행동해야 함을 잘 알면서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기에 도피하고 싶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② (가)에서 미래에 대한 어떠한 모습이나 화자의 인식도 엿볼 수 없다. (다)에서 화자는 마지막 수까지 자신의 길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③ (나)에서 부정적인 세계에 대한 화자의 인식은 잘 드러나 있지만, 화자는 이에 대해 대결의지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내면에서는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 침묵만 하고 있기에 자신의 영이 죽은 것이 아니냐며 반성하는 것이다. ④ (나)에서 화자는 현재의 자선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다)의 화자는 충효를 실천하고자 했으나 지난 십 년을 허둥대며 보낸 것 같아 이러한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14. [출제 의도] 추론적 사고(표현상의 공통점 파악)

㉓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키는 수미상관은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킨다. 끝 연은 첫 연 이후 전개된 시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의 1연에서 화자는 와사동 아래에서 방향성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화자의 상황은 2연의 도시적 풍경에 대한 어두운 비유와, 3연에서 낯설은 거리에서의 아우성 소리를 통해 점차 심화되고 있다. 4연에서는 '무거운 비애'를 지고 왔다는 인식에 이어 마지막 연에 이르렀다. 결국, 마지막 연에서의 반복은 1연에 제시된 화자의 정서가 그만큼 심화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나) 역시 마찬가지이다. 처음에는 자유를 말하고 있는 활자를 보며 화자는 자신의 영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이어지는 내용들에서 자신에 대한 자책, 중요한 현실에 대한 부정,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반성을 거쳐 다시 1연의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마지막 연에서는 화자의 자기반성의 정서가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나)에서 활자를 의인화시켜 화자에게 말하는 방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이를 통해 활자의 속성이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다.

15. [출제 의도] 비판적 사고(시구 감상의 적절성 평가)

① ㉓는 긴 여름해가 훌쩍 저 버리는 시간의 흐름을 마치 새가 날개를 접는 듯이 표현한 것이다. 날개가 표현되기는 하지만 날개를 접는다는 것에서 보듯이 이는 상승의 이미지가 아니다.

[오답 풀이] ② 시간의 흐름을 물의 흐름에 비유하는 것은 관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다. 하지만 해가 지는 것을 새가 날개를 접는 것에 비유한 것은 작가의 개성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③ ㉓는 밤이 성큼 다가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밤이 깊어질수록 화자의 슬픔과 고뇌는 심화되고 있다. ㉓에서 화자는 충효를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니 충효를 이루지 못할까 안타까워하고 있다. ㉓에서 '나래를 접고'와 ㉓에서 '물 흐르듯'에서 비유가 보인다. ㉓ 날개를 접는 것이나 물이 흐르는 것이나 모두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16. [출제 의도] 추론적 사고(시어의 함축성 파악)

㉓ <보기>에서 설명한 '자아와 세계 사이의 분열에 대한 자아의 반응'을 함축하고 있는 시어가 아닌 것을 찾으라 했다. ㉓의 '늘어진'은 건물이 길게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서는 화자의 정서나 반응을 엿볼 수가 없다.

[오답 풀이] ① 화자의 내면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③ 도시적 문명에 대한 화자의 거부 반응이 드러난다. ④ 도시에서 느끼는 화자의 내면이 표현되어 있다. ⑤ 와사동의 차가운 느낌은 화자가 도시 문명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대변하고 있다.

17. 비판적 사고(조건에 따른 감상의 적절성 평가)

㉓ <보기>의 정보에 의하면 작가가 서장에서 심신의 안정을 누리 후에 (나)의 작품을 창작했다고 한다. 그런데 작가는 심신의 안정을 찾았지만 생활에 대한 긍정을 지속하지 못하고, 이상과 현실을 문체 삼으면서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자신을 이겨내려고 애를 썼다고 한다. 이러한 반성적 사고가 작품에 반영된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를 말하는데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은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부끄러움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이상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므로 이상을 묵묵히 실천하려는 태도를 보여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18. 비판적 사고(작품의 종합적 감상)

㉓ <보기>는 연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연시조의 각 연들은 일관된 체계 아래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각 연들은 내적 질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다)의 제1수에서는 화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충효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제2수에서는 충효를 추구하고자 노력했으나 시간만 흘러가고 이를 이루지 못할까 걱정하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되었다. 제3수에서는 충효를 못 이루어도 자연을 추구하는 것이 또 하나의 길임을 제시하고 있다. '임천'이란 바로 자연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런데 ㉓에서는 '임천'의 좋은 점이 제2수에 드러나 있다고 했다. 제2수에서 추구하는 충효의 길과 제3수에서 추구하는 자연의 길은 서로 다른 길이기에는 잘못된 것이다. 제4수에서는 충효의 길(제2수)과 자연 추구의 길(제3수)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제5수에서는 표현을 달리하며 제4수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사령(김수영), **빠빠용-영화 사회학(유하)** - 수능특강 88p, 99p 관련〉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침 티브이에 난데없는 표범 한 마리  
 불난리의 복새통을 틈타 서울 대공원을 탈출했다  
 수재에 수재(獸災)가 겹쳤다고 했지만, 일순 마주친  
 우리 속 세 마리 표범의 우울한 눈빛이 서늘하게  
 내 가슴 깊이 박혀 버렸다  
 환순간 바람 같은 자유가  
 무엇이길래, 잡히고 또 잡혀도  
 파도의 아가리에 몸을 던진 빠빠용처럼  
 총알 빗발칠 폐허의 산속을 택했을까  
**평온한 동물원 우리 속** 그냥 남은 세 명의 드가  
 그러나 난 **그들을** 욱하지 못한다  
 빠빠용, 난 여기서 감자나 심으며 살래  
 드가 같은 마음이 있는 곳은 어디든  
 동물원 같은 공간이 아닐까  
 친근감 넘치는 검은 뿔테 안경의 드가를 생각하는데  
 저녁 티브이 뉴스 화면에  
 사살당한 표범의 시체가 보였다  
**거봐, 결국 죽잖아!**

티브이 우리 안에 갇혀 있는,  
내가 드가?

- 유하, 「빠빠용-영화 사회학」 -

(나) ……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잠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 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육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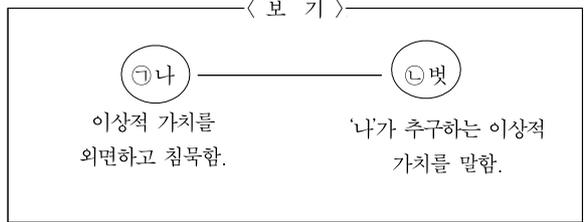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 김수영, 「사령(死靈)」 -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가상의 상황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의문형 진술을 활용하여 화자의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정서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동일한 문장 형태를 반복하여 대상의 불변성을 부각하고 있다.

2. (나)의 ㉠과 ㉡를 중심으로 (나)를 <보기>와 같이 정리하여 감상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을 통해 ㉠은 자신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은 ㉡의 말에 공감하면서도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 ③ ㉡은 ㉠이 죽어 있다고 느끼게 하는 존재로, ㉠에게 일깨움을 주고 있다.
- ④ ㉠이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는 것은 현실과 타협하지 못하는 자신의 태도에 대한 반성이라 할 수 있다.
- ⑤ ㉡이 '고요함'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은 '고요함'은 부정적 현실에 침묵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독자는 문학 작품을 읽는 동안 작품 속의 인물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그들의 생각을 파악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독자는 이 경험의 과정에서 작품 속 인물들이 어떤 관점에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또한 독자는 그들의 시각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그들의 삶과 관련하여 자신의 삶을 성찰한다.

- ① (가)에서 '내가' '거봐, 결국 죽잖아!'라고 말한 것을 통해,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의 부조리에 대해 화자가 분노하고 이를 이겨내려 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군.
- ② (가)에서 '내가' '내가, 드가?'라고 질문한 것을 통해, 현대인들이 '티브이' 안에 갇혀 자유를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독자가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군.
- ③ (가)에서 '내가' '평온한 동물원 우리 속에 '그냥 남은' '세 마리의 표범'을 '육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 화자 자신도 '그들' 처럼 자유를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군.
- ④ (나)에서 '내가' '활자'는 '간간이 자유를 말'한다고 여기는 것을 통해, 활자화된 자유를 부각하면서 동시에 자유롭지 못한 시대적 상황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군.
- ⑤ (나)에서 '내가'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며 반문하는 것을 통해, 화자가 부정적인 현실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자조적 반성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군.

사령(김수영) / 파피용-영화 사회학(유하)

**1. [출제 의도] 작품 간에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한다.**

② (나)에서는 1연의 내용이 5연에서 반복되는 수미상관이 구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가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가)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물난리를 틈타 표범이 대공원을 탈출'한 상황은 비일상적인 상황이라 볼 수도 있으나, 이러한 비일상적 상황의 가정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가)와 (나)는 모두 의문형 표현을 사용하여 성찰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을 뿐 어떠한 기대감이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가)와 (나) 모두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시상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⑤ (가)에서는 동일한 문장 형태의 반복을 확인할 수 없다. (나)에서는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마음에 들지 않아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일한 문장 형태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대상의 불변성을 부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 [출제 의도] 시적 대상의 의미를 파악하여 작품의 내용에 대해 이해한다.**

④ '나'가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는 것은 현실과 타협하지 못하는 자신의 태도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부정적 현실에 적극적으로 항거하지 못하고 안주할 수밖에 없는 '나'의 무기력한 태도에 대한 반성의 소리이다.

**[오답 풀이]** ① ㉠이 ㉡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은 ㉠이 부정적 현실에 맞서지 않고 현실에 안주해 버린 자신의 모습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에서 느끼는 부끄러움 때문이다. ② ㉢은 '반짝거리'는 자유의 가치를 알고 있지만 부정적 현실에 행동으로 맞서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 인물이다. ③ ㉣은 ㉠이 추구하는 가치인 '자유'를 담고 있으며, 이를 ㉠에게 알려주는데, 이는 '활자'를 의인화하여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고요함'은 부정적 현실에 침묵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적극적인 행동으로 맞서지 못하고 침묵으로 만들어진 거짓 평화이기 때문에 ㉣은 '고요함'을 거부하는 것이며, 화자 역시 '고요함'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3. [출제 의도] 주어진 외적 증거에 따라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한다.**

① '거봐, 결국 죽잖아!'라고 한 것은 표범 한 마리가 동물원 우리 속을 탈출해 사살당한 장면을 보면서 현실에 안주해 사는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하며 위안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안도감은 현실에 안주해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삶을 풍자하며 자조적인 태도로 변모하게 될 뿐, 의지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② <보기>에서 독자는 작품 속 인물들 삶의 모습과 방식을 이해하며 그들의 시각에서 자신을 성찰한다고 하였다. '내가, 드가?'라는 화자의 질문은 화자 자신이 '드가'처럼 우리 안에 갇힌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자아 성찰적 질문으로, 이를 통해 독자는 화자의 성찰을 공유하며 자신의 삶을 성찰한다고 할 수 있다. ③ (가)의 화자는 우리에게 남은 세 마리의 표범에게 욕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에게 동질감과 연민을 느꼈기 때문이다. 세 마리의 표범은 억압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유를 찾기보다 안정이 보장되는 현실에 안주해 살고 있는 화자 자신의 삶의 태도가 투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활자'는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한 것에서 '활자'로만 '자유'가 이야기되는 상황이 자유를 누릴 수 없는 현실의 부도덕함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⑤ '우스위라'에는 '나의 영(靈)은 죽은 것이 아니냐'라고 인식함으로써 부정적 현실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는 화자 자신의 무기력함에 대한 자조적인 태도가 함축되어 있다.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정호승) - 수능특강 88p 관련〉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는 왜 아침 출근길에  
구두에 질펀하게 오줌을 싸놓은  
강아지도 한 마리 용서하지 못하는가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구두를 신는 순간  
새로 갈아 신은 양말에 축축하게  
**강아지**의 오줌이 스며들 때  
나는 왜 강아지를 향해  
이 개새끼라고 소리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개나 사람이나 풀잎이나  
생명의 무게는 다 똑같은 것이라고  
산에 개를 데려왔다고 시비를 거는 사내와  
떡살잡이까지 했던 내가  
왜 강아지를 향해 구두를 내던지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었는데  
나는 한 마리 강아지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윤동주 시인**은 늘 내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밥만 많이 먹고 강아지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생의 순례자**가 될 수 있을까  
강아지는 이미 의자 밑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다  
오늘도 강아지가 먼저 나를 용서할까 봐 두려워라  
- 정호승,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

(나)

높은 가지를 흔드는 **메미소리**에 묻혀  
내 울음 아직한 노래 아니다.  
  
차가운 바다 위에 토하는 울음,  
풀잎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라도 **콘크리트벽** 좁은 틈에서  
숨막힐 듯, 그러나 나 여기 살아 있다  
**귀뚜라미** 뚜르르 보내는 **타전소리**가  
㉡ **누군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지금은 **메미**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  
그 소리 견히고 맑은 가을이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적이기도 하고  
계단을 타고 이 땅 밑까지 내려오는 날  
발길에 눌러 우는 내 울음도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 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 나희덕, 「귀뚜라미」 -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문형 진술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장면의 잦은 전환을 활용하여 긴박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③ 모순적 상황을 제시하여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④ 공간 이동에 따른 정서 변화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음성 상징어를 활용해 대상의 역동적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2.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이고, ㉡은 화자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 ② ㉠은 화자의 현재 상황을 알려 주는 것이고, ㉡은 화자의 과거 경험을 알려 주는 것이다.
- ③ ㉠은 화자의 적막한 처지를 알아주는 것이고, ㉡은 화자의 답답한 상황을 알아주는 것이다.
- ④ ㉠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안겨 주는 것이고, ㉡은 현실에 대한 실망감을 환기시켜 주는 것이다.
- ⑤ ㉠은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와 연관된 것이고, ㉡은 화자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알아주는 대상이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특정한 계기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는 시인은 스스로를 살펴보는 '메타적 자아'를 내세워 '나'를 직·간접적으로 대상화해 자신의 행동과 상황을 냉철하게 인식한다. 한편 시인은 자신과 대비되는 존재와 비교하여 자신을 평가함으로써 자아성찰의 태도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를 통해 시인은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본질적 태도나 이상을 드러낸다.

- ① (가)의 시인은 '강아지'를 향해 소리치는 상황을, (나)의 시인은 '맑은 가을이' '땅 밑까지 내려오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군.
- ② (가)의 시인은 자기 자신을 '나'로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나)의 시인은 자기 자신을 '타전소리' 보내는 존재로 대상화하여 제시하고 있군.
- ③ (가)의 시인은 '용서하는 법'을 배우라는 '윤동주 시인'을, (나)의 시인은 '하늘을 찌르는 메미'를 자기 자신과 대비되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군.
- ④ (가)의 시인은 구두에 오줌을 싼 '강아지'에게 화내는 상황을, (나)의 시인은 자신의 울음소리가 '메미소리'에 묻힌 상황을 내면 탐색의 계기로 삼고 있군.
- ⑤ (가)의 시인은 '용서하는 법'을 아는 '인생의 순례자'를 꿈꾸고 있고, (나)의 시인은 자신의 울음이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 가는 노래'가 되기를 바라고 있군.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정호승)

1. [출제 의도] 작품 간의 표현상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① (가)에서는 얻을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에서 의문형 어미를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면서 자신에 대한 성찰이라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울릴 수 있을까', '노래할 수 있을까'에서 의문형 어미를 통해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 자신의 노래가 의미를 가지길 소망하는 주제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가), (나) 모두 장면의 빈번한 전환도, 긴박감도 없다. ③ (가)에서는 생명의 무게를 중시해 사내와 먹살잡이까지 한 자신이 개에게 구두를 던지는 모순된 상황을 제시하면서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으나, (나)에서는 이러한 모순적 상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가)에서는 '나'가 출근하는 길에서 일어나는 경서를 제시한 것으로 장소의 이동은 드러나지 않는다. (나)에서도 장소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음성 상징어는 의성어, 의태어를 아우르는 말로, 소리나 몸짓을 사용하는 말을 의미한다. (가)에서는 축축이 (나)에서는 '뚜르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와 (나) 모두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었으나, (가)의 경우 '축축'이 강아지의 역동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나)의 '뚜르르'란 귀뚜라미 울음이 주는 비애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 뿐 귀뚜라미의 역동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2. [출제 의도] 작품에 제시된 시어나 행의 의미를 파악한다.

⑤ (가)에서 '사람의 마음'은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가 제시된 대상이고 (나)의 누구의 마음은 화자인 귀뚜라미가 자신의 노래가 의미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의 대상이다.

**[오답 풀이]** ① '사람의 마음'은 화자가 추구하고 이루고 싶은 가치이지 긍정의 대상은 아니며 (나)의 '누구의 마음' 또한 화자의 소망의 대상이지 부정적 대상은 아니다. ② (나)의 '누구의 마음'은 화자가 겪은 경험이 아닌 현재 화자가 겪고 있는 일이다. ③ (나)의 화자는 '누구의 마음'을 울릴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자신의 현재 처지에 대한 압담함을 느끼지만 (가)의 화자가 고요하고 쓸쓸한 '적막함'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④ (가)의 화자는 미래에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은 대상이지만, 이를 통해 기대감을 환기하고 있지 않으며, (나)의 화자는 현재 '누구의 마음'을 울릴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 하지만, 실망감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3. [출제 의도] 외재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① <보기>에서 메타적 자아를 통해 자신의 행동이나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이상이나 본질적 태도를 제시한다고 했다. (가)의 시인은 강아지를 향해 소리치는 자신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나)의 시인은 '맑은 가을이' '땅 밑까지 내려오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그러한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보기>에서 자기 자신을 직-간접적으로 대상화한다고 했는데, (가)의 경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로 제시하면서 자신을 직접적으로 대상화한 반면, (나)의 경우 시인인 '나'는 자신을 귀뚜라미로 의인화해 자신을 대상화하고 있다. ③ <보기>에서 시인은 자신과 대비되는 존재를 제시해 평가와 성찰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했다. (가)의 경우는 윤동주 시인과 자신을 대비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반면, (나)는 하늘 가득 있는 메미떼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다. ④ <보기>에서 특정한 계기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게 된다고 했다. (가)에서는 구두에 오줌을 똥 강아지를 혼내는 자신의 모습에서, (나)에서는 차가운 바닥 위에 툄한 자신의 울음이 메미소리에 묻히는 상황에서부터 내면 탐색이 시작되고 있다. ⑤ <보기>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본질적 태도나 이상을 드러낸다고 했는데, (가)의 경우 자신이 되고 싶은 이상향으로 '인생의 순례자'를, (나)에서는 자신의 울음이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가 되기를 바라며 자신의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신동엽) - 수능특강 91p 관련]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누가 ㉠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내가 본 건, ㉡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내가 본 건, 지붕 덮은  
쇠 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닭아라, 사람들아  
네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네 머리 덮은 쇠 항아리.

아침저녁  
네 마음속 구름을 닦고  
티 없이 맑은 영원의 하늘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畏敬)을  
알리다.

아침저녁  
네 머리 위 쇠항아릴 찢고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憐憫)을  
알리다.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모아리며.

서럽게  
아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 흘려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 신동엽,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

(나)

내 가슴에 ㉢ 독(毒)을 찬 지 오래로다  
아직 아무도 해(害)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흠어버리라 한다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할지 모른다 위협하고

독 안 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 나 마주 가 버리면  
억만 세대(億萬世代)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지라져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한데!’ 독은 차서 무엇하느냐고?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않고 보면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데!’ 허나  
앞뒤로 덤비는 ㉣ 이리 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매  
내 산 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핏귀우라 내맡긴 신세임을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막음 날 내 외로운 혼(魂) 건지기 위하여  
- 김영랑, 「독(毒)을 차고」 -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주고 받는 대화의 형식을 사용하여 지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명령형의 문장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의문을 해소하고자 한다.
- ④ (가)와 (나)와 달리 영탄적 표현을 통해 시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는 유사한 문장 형태의 변주를 통해, (나)는 어순의 도치를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화자가 추구하는 삶이 투영된 공간으로, 현재는 ‘누구’도 보지 못한 곳이다.
- ② ㉡은 ‘네’가 ㉠을 보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없어져야 할 부정적인 대상이다.
- ③ ㉢은 화자가 ‘벗’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 품은 것으로, ‘벗’은 이를 회피하고 있다.
- ④ ㉣은 화자를 위협하는 존재로, 화자가 ㉣을 차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 ⑤ ㉠과 ㉣은 모두 화자가 자신이 처한 현실 상황을 인식하게 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결정론은 세상의 모든 일은 일정한 자연법칙과 인과 관계에 따라 결정되어 있다고 보는 이론을 말한다. 이러한 결정론에서는 사람의 운명 역시 미리 정해져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프랑스의 사상가 알랭은 사람의 운명을 포함한 인간의 행위는 자유 의지를 통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자유 의지란 인간이 자신의 행동과 의사 결정을 외부적인 요소들에 의한 방해받지 않고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알랭은 인간이 이성적 자아를 가진 존재이기에 인간은 같은 상황에서도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 의지가 있다고 보았다.

- ① (가)에서 '먹구름'을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간 사람들에게 '네 마음 속 구름'을 '땀'이라고 한 것은 인간의 자유 의지를 통해 주어진 현실을 극복해야 함을 알리는 것이겠군.
- ② (나)에서 '나가' '무서운 독 그만 흠어 버리라'고 한 '벼'에게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라고 한 것은 같은 상황에서도 각자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 의지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③ (가)에서 '쇠 항아릴 찢은 사람이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마실 수 있'다고 한 것과 (나)에서 '나가'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퀴우라 내맡긴 신세'라고 한 것은 인과 관계에 따라 인간의 운명이 미리 정해져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④ (가)에서 '지붕 덮은 쇠 항아리'를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왔던 '네'와 (나)에서 '모래알이 될 것'이라며 '허무'하다고 말한 '벼'는 결정론의 입장을 따르는 수동적 존재라 할 수 있겠군.
- ⑤ (가)에서 '사람들에게 '네 머리 덮은 쇠 항아리'를 '찢어라'고 촉구하는 것과 (나)에서 '내 외로운 혼을 건지기 위하여' '독을 차고' 가겠다는 것은 화자가 자유 의지를 지닌 존재임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신동엽)

1. [출제 의도] 작품에 사용된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 (가)는 2연과 3연의 '네가 본 건~일생을 살아갔다.', 5연과 6연의 '아침저녁~' 등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 (나)는 4연의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 막을 날 내 외로운 혼 건지기 위하여'에서 문장의 어순을 도치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주고 받는 대화는 (나)에서만 가능하다. ② (가)는 '닭아라', '꿇어라' 등의 명령형 표현을 통해 작품의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지만, (나)에는 명령형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설의적 표현은 자신의 의문을 해소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④ (가)는 5연의 '외경(畏敬)을 알리라', 6연의 '아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 흘려' 등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나) 역시 '허무한 뒤'라는 영탄적 표현이 제시되어 있다.

2. [출제 의도] 시어의 함축적 의미와 기능을 파악한다.

㉡ (나)의 1연에서 화자는 '벗'에게 '그 독이 선뜻 벗도 해할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화자가 '독'이 '벗'을 해칠 수도 있으므로 '벗'에게 조심하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 '독'은 화자가 시적 대상인 '벗'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 품은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며, '벗'이 이를 회피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나)의 4연을 보면 화자는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독을 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5, 6연에서 화자는 '하늘'을 '티 없이 맑은 영원의 하늘',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로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로 볼 때 ㉣ '하늘'은 화자가 추구하는 삶이 투영된 공간으로 볼 수 있고, (가)의 1연에서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라는 설의법을 통해 아직 이러한 하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② (가)의 2연 '네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에서 '너'는 먹구름을 하늘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로 볼 때 ㉤ '먹구름'은 '너'가 ㉣ '하늘'을 보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볼 수 있고, 4연에서 화자는 사람들에게 하늘을 덮고 있는 먹구름을 '닭아라'고 호소하고 있으므로 '먹구름'은 없어져야 할 부정적인 대상으로 볼 수 있다. ④ (나)의 3연에서 '앞뒤로 담비는 이리 승냥이'가 화자의 마음을 노리고 있다고 했으므로 ㉥ '이리 승냥이'는 화자를 위협하는 존재로 볼 수 있고, 4연에서 화자는 3연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외로운 혼을 건지기 위해 ㉦ '독'을 차고 나아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⑤ (가)의 2연에서 화자는 ㉣ '먹구름'이 현재 하늘을 덮고 있다고 인식하면서, 사람들에게 먹구름을 닭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3, 4연에서 앞뒤로 담비는 ㉥ '이리 승냥이'가 자신의 마음을 노리고 있으므로 화자는 독을 차고 나아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볼 때, ㉢과 ㉥은 화자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인식하게 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출제 의도] 주어진 의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한다.

㉢ (가)의 6연에서 쇠 항아리를 찢은 사람만이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을 마실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인과 관계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미리 정해져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 의지를 통해 주어진 현실이 극복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나)의 3연에서 화자가 '잠송의 밤이 되어 찢기우고 할퀴우는 신세'가 된 것이 어떤 인과 관계에 따라 자신이 그러한 운명으로 정해져 있음을 보여 준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의 2연에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먹구름을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화자는 하늘을 덮고 있는 이러한 먹구름을 닭아야 하늘을 볼 수 있다고 외치는데, 이는 인간의 자유 의지를 통해 주어진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② (나)의 1, 2연에서 벗은 독 안 차고 살아도 언젠가는 땅덩이 모지라져 결국 모래알이 될 것이라며 그 무서운 독을 그만 풀어 버리라고 화자에게 충고하고 있다. 반면에 화자인 '나'는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독을 차고 선선히 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같은 상황에서도 각자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 의지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④ (가)의 3연에서 지붕 덮은 쇠 항아리를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간 '너'와 (나)의 2연에서 나중에 땅덩이 모지라져 결국 죽어 모래알이 될 것이라며 허무하다고 말하고 있는 '벗'은 모두 세상의 모든 일과 사람의 운명은 미리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결정론의 입장을 따르는 수동적 존재들로 볼 수 있다. ⑤ (가)의 4연에서 화자는 쇠 항아리를 하늘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머리를 덮고 있는 쇠 항아리를 찢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고, (나)의 4연에서 화자는 자신의 외로운 혼을 건지기 위하여 독을 차고 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볼 때 (가)와 (나)의 화자는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지닌 존재로 볼 수 있다.

〈홀린 사람(기형도), 상행(김광규) - 수능특강 92p, 247p 관련〉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회자가 외쳤다  
 여기 일생 동안 이웃을 위해 산 분이 계시다  
 이웃의 슬픔은 이분의 슬픔이었고  
 이분의 슬픔은 이글거리는 빛이었다 [A]  
 사회자는 하늘을 걸고 맹세했다  
 이분은 자신을 위해 푸성귀 하나 심지 않았다 [B]  
 눈물 한 방울도 자신을 위해 흘리지 않았다  
 사회자는 흐느꼈다  
 보라, 이 분은 당신들을 위해 청춘을 버렸다  
 당신들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  
 그분은 일어서서 흐느끼는 사회자를 제지했다  
 군중들은 일제히 그분에게 박수를 쳤다 [C]  
 사내들은 울먹였고 감동한 여인들은 실신했다  
 그때 누군가 그분에게 물었다, 당신은 신인가  
 그분은 목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당신은 유명인가, 목소리가 물었다  
 저 미치광이를 끌어내, 사회자가 소리쳤다  
 사내들은 달려갔고 분노한 여인들은 날뛰었다  
 그분은 성난 사회자를 제지했다  
 군중들은 일제히 그분에게 박수를 쳤다  
 사내들은 울먹였고 감동한 여인은 실신했다  
 그분의 답변은 군중들의 아우성 때문에 들리지 않았다  
 - 기형도, 「홀린 사람」 -

(나)

가을 연기 자욱한 저녁 들판으로 [D]  
 상행 열차를 타고 평택을 지나갈 때  
 흔들리는 차창에서 너는  
 문득 낯선 얼굴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지 말아 다오.  
 오징어를 씹으며 화투판을 벌이는  
 낮익은 얼굴들이 네 곁에 있지 않느냐.  
 황혼 속에 고향치는 원색의 지붕들과  
 잠자리처럼 파들거리는 TV 안테나들  
 흥미 있는 주간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여 다오.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 같은  
 심야 방송이 잠든 뒤의 전파 소리 같은  
 듣기 힘든 소리에 귀기울이지 말아 다오.  
 확성기마다 울려 나오는 힘찬 노래와 [E]  
 고속 도로를 달려가는 자동차 소리는 얼마나 경쾌하냐.  
 예부터 인생은 여행에 비유되었으니  
 맥주나 콜라를 마시며  
 즐거운 여행을 해 다오.  
 되도록 생각을 하지 말아 다오.  
 놀라울 때는 다만 아!라고 말해 다오.  
 보다 긴 말을 하고 싶으면 침묵해 다오.

침묵이 어색할 때는  
 오랫동안 가문 날씨에 관하여  
 아르헨티나의 축구 경기에 관하여  
 성장하는 GNP와 증권 시세에 관하여  
 이야기를 다오.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 김광규, 「상행」 -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동일한 어구를 반복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극복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② (가)는 우의적인 방식으로, (나)는 외적 대상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지상을 전개하여 주제 의식을 구현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대상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함께 제시하여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는 색채어를 활용하여, (나)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역동적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는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나)는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2.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비슷한 의미 구조를 지니는 구절을 거듭 제시하여, 인물을 미화하여 소개하고 있다.
- ② [B]는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한 인물이 다른 인물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다.
- ③ [C]는 인물에 대한 반응이 증폭되는 모습을 제시하여, 인물에 대한 맹신을 나타내고 있다.
- ④ [D]는 계절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화자나 인물이 처한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E]는 열차 밖의 풍경을 묘사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예찬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3.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기형도와 김광규는 자신들의 시에서 진실을 감추고 거짓을 호도하는 지배층과 이를 비판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수용하여 현실 순응적인 삶을 살아가는 소시민의 모습을 비판하기 위해 다양한 문학적 장치를 활용하였다. 시인은 현 상황을 대변하거나 비판하는 상징적 인물과 사건 제시를 통해 현실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겉으로는 객관적 또는 긍정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비판하는 화자의 목소리를 감춰두면서 독자의 올바른 해석을 유도한다.

- ① (가)의 '누군가와 (나)의 '낯선 얼굴'은 진실을 밝히고 실체에 접근하려는 깨어있는 존재를 의미하겠군.
- ② (가)의 '목소리'와 (나)의 '잠든 뒤의 전파소리', '듣기 힘든 소리'는 현 상황의 문제를 비판하고자 하는 화자를 대변하는 것이겠군.
- ③ (가)의 '아우성'과 (나)의 '보다 긴 말'은 독자의 올바른 해석을 유도하기 위해서 현실을 비판하는 화자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가)의 '사회자'는 상황을 거짓으로 호도하는 존재로, (나)의 'TV 안테나', '주간지'는 상황을 맹목적으로 수용하게 만드는 대상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가)의 '달려가는 사내', '분노한 여인'은 무비판적인 소시민의 모습을, (나)의 '낯익은 얼굴'은 현실 순응적인 삶을 살아가는 소시민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겠군.

## 기형도 '홀린 사람(기형도) / 상행(상행)

## 1. [출제 의도] 작품의 특징을 설명한다.

② (가)에서는 사회자의 소개와 이에 대한 군중들의 반응을 통해 사회의 단상을 전형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나) 역시 서울로 가는 기차 안밖의 풍경을 외부의 화자가 제시하면서 소시민의 삶에 대한 비판이라는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는 동일한 어구의 반복보다는 행위의 확장, 예컨대 사회자가 '의쳤다', '호느꼈다'와 같은 행위의 확장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은 화자의 극복 의지를 드러내기보다는, '그분'에 대한 맹목적 믿음을 부각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다. (나)에서는 '~다오'를 반복함으로써 유사한 시구의 반복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반복을 통해 소시민의 삶에 대한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③ (가)에는 대상의 현재 모습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여러 인물에 대한 태도 변화 또한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처음부터 끝까지 짐짓 객관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나) 역시 이러한 태도 변화의 모습이 제시된 것은 아니다. ④ '빨간', '푸르른'과 같이 색상을 의미하는 색채어는 (가)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찌르르', '아장아장'과 같이 소리와 모양을 흉내내는 의성어와 의태어를 아우르는 음성 상징어는 (나)에 사용되지 않았다. ⑤ 설의적 표현은 이미 알고 있거나, 문는 형식을 통해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드러내는 표현법인데, (가)는 이러한 설의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았다. 한편 영탄적 표현은 깨달음이나, 놀람과 같은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기 위해 감탄사나, '~이여'와 같은 호격 조사, '~어라'나 '~느'와 같은 종결 어미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나)의 경우 영탄적 표현보다는 정유의 표현에 가까우며, 이러한 표현이 대상에 대한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대상의 부정적 속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 2. [출제 의도] 작품에 나타난 시형의 표현을 파악한다.

⑤ 힘찬 노래와 자동차 소리를 경쾌하다고 하는 화자의 목소리는 얼핏 진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화자는 의도하고자 하는 바를 반대로 말하는 반어적 화자이다. 따라서 긍정적 인식이 아닌, 그런 소리에만 집중하는 '너'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웃의 슬픔 - 이분의 슬픔 - 이분의 슬픔 - 이글거리는 빛으로 연속적으로 관련지어 '이분'의 사랑을 제시하고 있다. ② 작고 사소한 것을 의미하는 '푸성귀'를, 고결하고 순수한 '눈물'을 제시하며 그 어느 것 하나도 자신을 위한 적이 없는 '이분'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③ 군중들, 즉 사내와 여인의 행동을 각각 박수를 치다가 울먹이고 실신하는 형태, 즉 '이분'에 대한 믿음이 증폭되는 형태로 제시함에 따라 군중들의 믿음의 깊이를 드러내고 있다. ④ 계절적 배경인 '가을'과 시간적 배경인 '저녁'을 제시하면서 '상행 열차를 타고 평택을 지나'는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너'의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3. [출제 의도] 외재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③ <보기>에서는 겉으로는 객관적 혹은 긍정하는 척하지만 이를 비판하는 화자의 목소리를 감취두면서 올바른 해석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나)의 경우 추극경이나 증권시세를 이야기하라는 화자의 언급은, 그러면 안 된다는 반어적 표현이나 (가)의 '그분'의 '답변'이 '아우성'에 묻힌 것은 우상화된 인물의 실체가 대중들에 의해 은폐되는 사실을 의미하지, 이를 반어적 목소리로 제시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 현 상황을 비판하는 상징적 인물과 사건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가)에서는 '그분'의 정체를 묻는 '누군가'의 존재가, (나)에서는 '낯선 얼굴'이 진실을 밝히고 실체에 접근하려는 개어있는 존재를 의미한다. ② <보기>에서는 사건 제시를 통해 현실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가)에서는 '그분'에게 당신은 유명인가라고 묻는 '목소리'를, (나)에서는 잠든 뒤의 전화소리나 '듣기 힘든 소리'가 현실을 비판하는 소리를 제시하여 현실을 비판하는 목소리로 드러내고 있다. ④ <보기>에서 진실을 감추고 거짓을 호도하는 지배층이 있다고 했는데, (가)에서 '사회자'는 대중들에게 거짓을 선포하고 호도하는 존재이며, (나)에서 'TV 앵커'나 '주간지'는 현실문제를 은폐하고 외면하게 만드는 존재들이다. ⑤ <보기>에서 지배층의 호도를 비판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소시민의 모습을 상징적 인물이나 사건 제시를 통해 드러낸다고 했는데, (가)의 경우 '사회자'의 호도를 믿고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사내'나 '분노한 여인'은 무비판적인 소시민을 대변하며, (나)의 '낯익은 얼굴' 역시 비판없이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소시민의 모습을 상징한다.

〈중소리(박남수) - 수능특강 95p 관련〉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 나는 떠난다. 청동(靑銅)의 표면에서  
 일제히 날아가는 진폭의 새가 되어  
 광막한 하나의 울음이 되어  
 하나의 소리가 되어.

인중(忍從)은 끝이 나는가.  
 청동의 벽에  
 '역사'를 가두어 놓은  
 칠혹의 감방에서.

나는 바람에 실리어  
 들에서는 푸름이 된다.  
 꽃에서는 웃음이 되고  
 천상에서는 악기가 된다.

먹구름이 깔리면  
 하늘의 꼭지에서 터지는  
 뇌성(雷聲)이 되어  
 가루 가루 가루의 음향(音響)이 된다.

- 박남수, 「중소리」 -

(나)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 내 호올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긴 여름 해 황망히 나래를 접고  
 늘어선 고층 창백한 묘석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형글어진 채  
 사념\* 병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고 왔기에  
 길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 김광균, 「와사등」 -

\*와사등: 석탄 가스로 불을 켜는 등.  
 \*차단한: 차디찬.  
 \*사념: 근심하고 염려하는 따위의 여러 생각.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시간의 역전적 흐름에 따라, (나)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대상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가)는 주로 직유법을 활용하여, (나)는 주로 은유법을 활용하여 대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가)는 시적 허용을 통해, (나)는 명사형 종결 어미를 통해 시적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 (나)는 시상의 극적 전환을 통해 화자의 정서 변화와 깨달음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가)는 동일한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 (나)는 유사한 시행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2.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과 달리 의인화된 대상으로 볼 수 있다.
- ② ㉠은 ㉡과 달리 대상을 다양한 보조 관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은 ㉠과 달리 지속적으로 한 곳을 응시하고 있다.
- ④ ㉠과 ㉡은 영탄적 어조를 통해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⑤ ㉠과 ㉡은 모두 특정 대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3.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와 (나)는 모두 부정적인 현실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른 화자의 행동 양상과 정서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가)는 부정적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화자의 의지와 열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나)는 부정적 현실에서 방향 감각을 잃고 방황하다 끝내 절망하고 마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① (가)의 '청동의 표면', '청동의 벽'은 촉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부정적인 현실 상황을 제시하는 것이겠군.
- ② (가)의 '일제히 날아가는 진폭의 새'는 동적인 분위기를 통해 부정적인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화자의 의지와 열망을 나타내는 것이겠군.
- ③ (나)의 '창백한 묘석', '무성한 잡초'는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부정적인 현실 상황에서의 화자의 행동 양상을 제시하는 것이겠군.
- ④ (나)의 '길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는 회화적 표현을 통해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체념하고 있는 화자의 절망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⑤ (나)의 '내 호올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는 의문의 형식을 통해 부정적 현실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고 방황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중소리(박남수)

1. [정답] ⑤ (가)는 동일한 종결 어미 ‘-어’, ‘-다’ 등의 반복을 통해 시적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으며, (나)는 첫 행과 마지막 행을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시간의 역전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② (가)는 주로 은유법을 활용하여 대상을 형상화하고 있고, (나)는 주로 직유법을 활용하여 대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③ 시적 허용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나)이며, 명사형 종결 어미의 사용은 (가)와 (나)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는다. ④ (가)에 계절의 변화를 통해 화자의 깨달음이 드러나지 않고, (나)에도 시상의 전환은 드러나지 않는다.

2. [정답] ③ ㉠의 화자는 시선의 이동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의 화자는 한 곳을 응시하기보다는 다양한 곳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은 ‘중소리’로 의인화된 대상이나, ㉡은 현대인으로 의인화된 대상이 아니다. ② ㉠은 ‘중소리’를 다양한 보조 관념을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지만, ㉡과 관련된 보조 관념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은 ‘인종은 끝났는가’, ㉡은 ‘어디로 가라는 신호냐’ 등의 영탄적 어조를 드러내며 각각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⑤ ㉠은 ‘청동의 표면(중)’ 등을 부정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고, ㉡은 ‘고층’ 등의 현대 문명을 부정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3. [정답] ③ (나)는 ‘장백한 묘석’이나 ‘무성한 잡초’와 같은 시어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부정적 현실 상황을 제시하는 것이지, 화자의 행동 양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청동의 표면’이나 ‘청동의 벽’과 같은 시어에서 촉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부정적 현실 상황을 제시한다. ② (가)는 세가 되어 날아가는 동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의지와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의 ‘길게 늘인 그림자’는 절망의 회화적 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는 화자의 고독을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나)의 ‘내 호울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는 의문의 형식을 통해 삶의 방향을 상실한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황인숙), 풍장 1(황동규) - 수능특강 95p, 98p 관련〉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다음에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윤기 잘잘 흐르는 까망 얼룩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사뿐사뿐 펄 때면 커다란 까치 같고  
 공처럼 둥굴릴 줄도 아는  
 작은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나는 뒷마루에서 줄지 않으리라.  
 사기그릇의 우유도 핥지 않으리라.  
 가지덤플 속을 누벼 누벼  
 너른 벌판으로 나가리라.  
 거기서 들쥐와 뛰어놀리라.  
 배가 고프면 살금살금  
 참새 떼를 덮치리라.  
 그들은 놀라 후다닥 달아나겠지.  
 아하하하  
 폴짝폴짝 뒤따르리라.  
 꼬마 참새는 잡지 않으리라.  
 할딱거리는 고놈을 앞발로 툭 건드려  
 놀래 주기만 하리라.  
 그리고 곧장 내달아  
 제일 큰 참새를 잡으리라.

이윽고 해는 기울어  
 바람은 스산해지겠지.  
 들쥐도 참새도 가 버리고  
 어두운 벌판에 홀로 남겠지.  
 나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어둠을 훑으며 난가리를 찾으리라.  
 그 속은 아늑하고 짙단 냄새 훈훈하겠지.  
 훌쩍 뛰어올라 깊이 웅크리리라.  
 내 잠자리는 달빛을 받아  
 은은히 빛나겠지.  
 혹은 거센 ㉠바람과 함께 찬비가  
 빈 벌판을 쏘다닐지도 모르지.  
 그래도 난 털끝 하나 적시지 않을걸.  
 나는 꿈을 꾸리라.  
 농친 참새를 쫓아  
 밝은 들판을 내달는 꿈을.  
 - 황인숙,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

(나)

내 세상 뜨면 풍장\*시켜 다오  
 섭섭하지 않게  
 웃은 입은 채로 전자시계는 가는 채로  
 손목에 달아 놓고  
 아주 춤치는 않게

가죽 가방에 넣어 전세 택시에 싣고  
 군산(群山)에 가서  
 검색이 심하면  
 곰소쭈에 가서  
 통통배에 옮겨 실어다오

가방 속에서 다리 오그리고  
 그러나 편안히 누워 있다가  
 선유도 지나 무인도 지나 통통 소리 지나  
 배가 육지에 허리 대는 기척에  
 잠시 정신을 잃고  
 가방 벗기우고 옷 벗기우고  
 무인도의 늦가을 차가운 햇빛 속에  
 구두와 양말도 벗기우고  
 손목시계 부서질 때  
 남몰래 시간을 떨어트리고  
 바람 속에 익은 붉은 열매에서 툭툭 통기는 씨들을  
 무연히 안 보이듯 바라보며  
 살을 말리게 해 다오  
 어금니에 박혀 녹스는 백금(白金) 조각도,  
 ㉡바람 속에 빛나게 해 다오

바람 이불처럼 덮고  
 화장(化粧)도 해탈(解脫)도 없이  
 이불 여미듯 바람을 여미고  
 마지막으로 몸의 피가 다 마를 때까지  
 바람과 놀게 해 다오.

- 황동규, 「풍장 1」 -

\* 풍장 : 시체를 한테에 버려두어 비바람에 자연히 없어지게 하는 장례법.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나)는 죽음의 상황을 가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대화를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동일한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2.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은 모두 화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수용하게 만드는 존재이다.
- ② ㉠과 ㉡은 모두 화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성찰하게 하는 매개체이다.
- ③ ㉠은 화자에게 두려움을 유발하는 대상이고, ㉡은 화자에게 위안을 주고 있는 대상이다.
- ④ ㉠은 화자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는 대상이고, ㉡은 화자에게 기대감을 주고 있는 대상이다.

- ⑤ ㉠은 화자에게 시련과 고난을 안겨 주는 대상이고, ㉡은 화자에게 소망의 실현을 도와주는 대상이다.

3.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와 (나)는 삶에 대한 소망과 의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들이다. (가)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거부하고 야생의 삶을 살아가려는 고양이들 통해 현실의 굴레에 얽매이기보다는 자유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풍장'이라는 장례 방식을 통해 현실의 구속된 삶에서 벗어나 자연과 합일된 진정한 자유의 삶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① (가)에서 '나'가 '뿔마루에서 졸지 않고' '사기그릇의 우유도 활지 않으리라'고 한 것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거부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② (나)에서 '내'가 '세상 뜰' 후에 '웃은 입은 채로 전자시계는 가는 채로 손목에 달아 놓고' '풍장시켜' 달라고 한 것은 현실의 구속된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③ (가)에서 '참새를 쫓아 밝은 들판을 내닫는 꿈'과 (나)에서 '몸의 피가 다 마를 때까지 바람과' 노는 것은 모두 자유로운 삶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형상화한 것이겠군.
- ④ (가)에서 '나'가 '고양이로 태어나' '들쥐와 뛰어놀'게 될 '너른 벌판'과 (나)에서 '내'가 '늦가을 차가운 햇빛 속에' '살을 말린' '무인도'는 모두 진정한 자유의 삶이 있는 공간에 해당하겠군.
- ⑤ (가)에서 '나'가 '가시덤불 속을 누벼 누벼 너른 벌판으로 나가'는 것은 야생의 삶을 살아가려는 화자의 모습을, (나)에서 '내'가 '바람'을 '이불처럼 덮고', '이불 여미듯 바람을 여미'는 것은 자연과 합일된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황인숙) / 풍장 1(황동규)

1. [출제 의도] 작품에 사용된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④ (나)는 '내 세상 뜨면 풍장시켜 다오', '똥똥배에 옮겨 실어다오' 등에서 말을 건네는 듯한 표현을 활용하여 청자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가)는 화자의 독백체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사뻐사뻐', '살금살금', '폴짝폴짝' 등의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고양이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② (나)는 시의 첫 부분을 '내 세상 뜨면 풍장시켜 다오'로 시작하여 화자가 자신의 죽음을 가정하면서 유사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③ (가)에서는 '까망 얼룩 고양이', (나)에서는 '붉은 열매'라는 색채를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⑤ (가)에서는 '~리라', '~겠지', (나)에서는 '~다오'라는 동일한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2. [출제 의도] 시어가 지닌 함축적 의미와 기능을 파악한다.

⑤ (가)의 2연에서 '기센 바람과 함께 찬비가 빈 벌판을 쏘다닐지'라도 '그래도 난 털갈 하나 적시지 않을 거라고 했다. 이는 '바람'과 '찬비'라는 외적인 시련에도 지를 꺾지 않겠다는 화자의 다짐으로 볼 수 있다. 이로 볼 때 ㉠의 '바람'은 화자에게 외적인 시련과 고난을 주는 소재로 볼 수 있다. (나)에서 화자는 자신을 '풍장'시켜달라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풍장'은 시체를 한데 버려두어 비바람에 자연히 없어지게 하는 장례법으로 시체가 자연히 없어지기 위해서는 '바람'이라는 매개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의 '바람'은 풍장을 시켜달라는 화자의 소망을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하는 소재로, 모든 사물을 소멸시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풍화작용을 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과 ㉡의 '바람' 모두 화자 자신이 처한 상황을 수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다. ㉠의 '바람'은 오히려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화자가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② ㉠과 ㉡의 '바람' 모두 화자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③ (가)의 2연에서 화자는 '기센 바람과 함께 찬비가 빈 벌판을 쏘다닐지'라도 '그래도 난 털갈 하나 적시지 않을 거라고 했으므로 ㉠의 '바람'이 화자에게 두려움을 유발하는 대상은 아니고, 오히려 이런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다. 또한 ㉡의 '바람'이 화자에게 위안을 주는 대상도 아니다. ④ ㉡의 '바람'은 화자의 소망인 풍장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이므로 화자에게 기대감을 준다고도 할 수 있으나, ㉠의 '바람'은 화자에게 실망감을 주는 대상이 아니다.

3. [출제 의도] 주어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한다.

② (나)의 1연에서 화자가 '웃은 입은 채로 전자시계는 가는 채로 손목에 달아 놓고' 풍장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꾸밈없이 평소 모습 그대로 풍장 되기를 바라는 화자의 심리로 볼 수 있지, 이것이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현실의 구속된 삶에서 벗어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시에서 '웃, 가방, 구두, 양말, 시계'는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것으로 현실의 구속을 상징하는 사물로 볼 때, 오히려 (나)의 2연에서 화자가 몸에 지니고 있던 '가방, 웃, 구두와 양말'을 벗기는 행위가 지금까지 살아온 현실의 구속된 삶에서 벗어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빛마루'와 '사기그릇의 우유'는 고양이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제공한 것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나는 빛마루에서 좋지 않고, 사기그릇의 우유도 좋지 않으리라.'에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거부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가)에서 화자는 빛마루에서 좋지 않고, 사기그릇의 우유도 좋지 않고, 들판으로 나아가 큰 참새를 쫓으며 자유롭게 살아가겠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 화자는 '바람을 이불처럼 덮고, 이불 여미듯 바람을 여미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육신이 다 마를 때까지 바람과 함께 놀면서 자연과의 합일과 자유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가)의 '니른 들판'은 화자가 꿈꾸는 '들쥐'와 뛰어놀고, '큰 참새'를 잡고, 짙단 속에서 혼혼하게 잠을 자는 공간이다. (나)의 '무인도'는 자신의 육신이 풍장이 되는 공간으로 자연과의 합일을 통해 자유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이로 볼 때 (가)의 '니른 들판'과 (나)의 '무인도'는 각각 화자가 소망하는 진정한 자유의 삶이 있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⑤ (가)에서 화자가 빛마루와 우유가 있는 안락한 집에서 나와 가시덤불 속을 누비며 니른 들판에서 들쥐와 뛰어놀고 참새를 잡으려는 행위는 야생의 삶을 살아가려는 고양이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나)에서 화자가 자연물인 바람을 이불처럼 덮고, 이불 여미듯 바람을 여미는 행위는 자연과 합일된 화자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신경림) - 수능특강 101p 관련>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비탈\*에 돌밭에 저절로 나서  
저희들끼리 자라면서  
재재발거리고 떠들어 쌓고  
밀고 당기고 간지럼질도 시키고  
시새우고 토라지고 다투고  
시든 잎 쟁기면 서로 떼어 주고  
아픈 곳은 만져도 주고  
끌어안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고  
이렇게 저희들끼리 자라서는  
늪으면 동무나무 썩은 가질랑  
슬쩍 잘라 주기도 하고  
세월에 굵고 터진 상처는  
긴 혀로 핏아 주기도 하다가  
열매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머리와 어깨와 다리에  
가지와 줄기에  
주렁주렁 달았다가는  
별 많은 밤을 골라 그것들을  
하나하나 떼어 온 고을에 뿌리는  
㉠ 우리 동네 늪은 ㉡ 느티나무들  
- 신경림,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 -  
\*산비탈: '산비탈'의 방언

(나)  
㉢ 평상\*이 있는 국숫집에 갔다  
뽕비는 국숫집은 삼거리 슈퍼 같다  
㉣ 평상에 마주 앉은 사람들  
세월 넘어난 친정 오빠를 서로 만난 것 같다  
국수가 찬물에 행귀져 건져 올려지는 동안  
쫄쫄쫄쫄 쫄쫄쫄쫄,  
손이 손을 잡는 말  
눈이 눈을 쓸어주는 말  
병실에서 온 사람도 있다  
식당일을 손 놓고 온 사람도 있다  
사람들은 평상에만 마주 앉아도  
마주 앉은 사람보다 먼저 더 서럽다  
세상에 이런 짧은 말이 있어서  
세상에 이런 깊은 말이 있어서  
국수가 찬물에 행귀져 건져 올려지는 동안  
쫄쫄쫄쫄 쫄쫄쫄쫄,  
큰 푸조나무\* 아래 우리는  
모처럼 평상에 마주 앉아서  
- 문태준, 「평상이 있는 국숫집」 -  
\*평상: 나무로 만든 침상의 하나. 밖에다 내어 앉거나 드러누워 쉴 수 있도록 만든 것.  
\*푸조나무: 느릅나무과의 낙엽 활엽 교목. 높이는 20미터 정도이고, 잎은 어긋나고 달걀 모양인데 톱니가 있음.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의인화를 통해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는 동일한 연결 어미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③ (나)는 불완전한 문장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여운을 주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시간의 흐름을 역전시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상을 드러내고 있다.

2.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는 모두 화자가 시적 대상과 자신을 비교하는 공간이다.
- ② ㉠과 ㉡는 모두 화자가 대상들로부터 바람직한 삶의 이치를 깨닫는 공간이다.
- ③ ㉠은 역동적 이미지를 가진 공간이고, ㉡는 정적 이미지가 부여된 공간이다.
- ④ ㉠은 화자와 대상이 서로 동질성을 확인하는 공간이고, ㉡는 화자와 대상이 서로 대립하는 공간이다.
- ⑤ ㉠은 화자가 자연과 동화되어 자연의 삶을 누리는 공간이고, ㉡는 화자가 자신의 내면세계를 응시하는 공간이다.

3.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문학은 개인의 정서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동체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가)와 (나) 역시 공동체적 삶의 중요성과 그 아름다움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가)는 느티나무들을 통해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나)는 국숫집에서 만난 평범한 사람들이 평상에 마주 앉아 국수를 먹으며 서로의 아픔에 대해, 소외된 민중들에게 서로 연민과 위로를 주고받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① ㉠의 '재재발거리고 떠들어 쌓고', '밀고 당기고 간지럼질도 시키는' 모습을 통해, 함께 어울려 사는 공동체의 정다운 면모를 보여 주고 있군.
- ② ㉠의 '아픈 곳은 만져도 주고, 끌어안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는' 모습을 통해,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의 아름다움을 보여 주고 있군.
- ③ ㉡의 호칭이 '사람들'에서 '우리'로 변화되는 것을 통해, 사람들이 점차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군.
- ④ ㉡의 '마주 앉은 사람보다 먼저 더 서럽다'는 것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의 고통에 대한 깊은 연민과 공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군.
- ⑤ ㉠의 '이야기를' '온 고을에 뿌리는' 모습을 통해, ㉡은 '평상에 마주 앉은' 모습을 통해 화자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의 소외감을 보여 주고 있군.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신경림)

1. [출제 의도] 작품에 사용된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④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느티나무'를 전체적으로 의인화하여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② (가)는 '떠들어 쌓고, 밀고 당기고 간지럽질도 시키고, 시세우고 토라지고 다두고' 등 연결 어미 '-고'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느티나무의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고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③ (나)는 마지막 행에 '큰 푸조나무 아래 우리는 모처럼 평상에 마주 앉아서'라는 시술어를 생략한 문장을 통해 시적 여운을 자아내고 있다. ⑤ (가)는 17행에 '주렁주렁'이라는 의태어를 사용하여 '열매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지닌 느티나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나)는 '쫓쫓쫓'이라는 소리를 사용하여 서로를 위로해 주고 있는 국숫집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타당한 선지이다.

2. [출제 의도] 시적 공간이 지니는 함축적 의미와 기능을 파악한다.

② (가)와 (나)에서 시적 대상인 '느티나무'들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각각 ④ '우리 동네'와 ⑥ '평상이 있는 국숫집'으로, (가)와 (나)의 화자는 시적 대상인 이들을 관찰하고 있다. 이들은 서로 의지하고 위로해 주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와 (나)의 화자는 이들로부터 인간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깨닫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의 화자는 시적 대상들을 관찰하면서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배우고 있지만, 시적 대상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③ ④ '우리 동네'는 느티나무들이 서로 재잘거리고 떠들고 밀고 당기고 간지럽질도 시키는 역동적인 공간이다. 또한 ⑥ '평상이 있는 국숫집' 역시 마치 '동네 삼거리 슈퍼'처럼 사람들로 북적이는 공간으로, 거기서 사람들은 국수를 먹으며 서로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므로 역동적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④ ⑥ '평상이 있는 국숫집'은 시적 대상들이 상하 신분 없이 서로의 삶을 스스럼없이 나누고 위로해 주는 소박하고 친근한 수평적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⑥는 화자와 대상이 서로 대립하는 공간이라 할 수 없다. ⑤ ⑥ '우리 동네'는 화자가 느티나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배우는 공간이지, 자연 친화적 삶을 누리는 공간은 아니다. ⑥ '평상이 있는 국숫집' 역시 서로의 아픔을 나누어 가지는 국숫집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는 공간으로, 화자가 자신의 내면세계를 응시하고 있는 부분은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3. [출제 의도] 주어진 의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한다.

⑤ (나)의 화자는 평상이 있는 국숫집에 가서 ㉠ '사람들'과 평상에 마주 앉아 함께 국수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모습에서 공동체적 삶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느끼고 있다. 하지만 (가)의 화자는 동네에 있는 느티나무들의 나고 자라 늙어가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그들로부터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깨닫고 있다. 나아가 공동체의 소외감을 해당 시어들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오답 풀이] ① ㉠ '느티나무들'이 '저희들끼리 자라면서 재재발거리고 떠들어 쌓고, 밀고 당기고 간지럽질도 시키'는 모습은 함께 어울려 사는 공동체의 정다운 모습이 라 할 수 있다. ② ㉠ '평상에 마주 앉은 사람들'이 함께 국수를 먹으며 상대방의 어렵고 힘든 사연을 듣고 '먼저 더 서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마주 앉은 사람'의 아픔에 대한 깊은 연민과 공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 '느티나무들'을 '저희들'로 부르는 것과 ㉡의 호칭이 '사람들'에서 '우리'로 변화되는 것은, 이들이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과 ㉡이 정서적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의 모습이다. ④ ㉠ '느티나무들'이 서로 아픈 곳은 만져도 주고, 끌어안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는 것과 ㉠ '평상에 마주 앉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아픈 사연을 듣고 상대방에게 건네는 '손이 손을 잡는 말, 눈이 눈을 쓸어 주는 말('쫓쫓쫓')은 모두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의 아름다움을 보여 주는 것이다.

〈들길에서 마을로(고재중) - 수능특강 101p 관련〉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해거름, 들길에 선다. 기암기암 산 그림자 내려오고 길옆의 **망초꽃**들 몰래 흔들린다. 눈물방울 같은 짐작들, 이제는 벼 끝으로 올라가 수정방울로 맺힌다. 세상에 허투른 것은 하나 없다. 모두 새 몸으로 태어나니, 오늘도 **쭉독새**는 저녁 들을 흔들고 ㉠ **그 울음**으로 벼들은 **쭉쭉쭉** 자란다. 이때쯤 **도랑물**에 삼을 씻는 노인, **그 한 생애의 백발은 나의 꿈**. 그가 문득 서천으로 고개를 든다. ㉡ **거기 불새가 복새질을 치니 내일도 쟁쟁하겠다**. 쟁쟁할수록 더욱 치열한 벼들, 이윽고는 **도랑물** 소리 크게 들려 더욱더 푸르러진다. 이쯤에서 대숲 둘러친 **마을 쪽을 안 돌아볼 수 없다**. 아직도 몇몇 집에서 오르는 연기. 저 질긴 전통이, 저 오롯한 기도가 거기 **밤꽃보다 환하다**. 그래도 밤꽃 사래 난 밤꽃 향기. 그 싱그러움에 이르러선 문득 들이 넓어진다. 그 넓어짐으로 난 아득히 안 보이는 지평선을 듣는다. 뿌듯하다. 이 뿌듯함은 또 어찌려고 웬 **쭉독새 울음**까지 불러내니 아직도 참 모르겠다. ㉢ **알 강물조차 시리게 우는** 서러움이다. 하지만 이제 하루 여미며 저 노인과 나누고 싶은 **탁배기 한 잔**. 그거야말로 금방 뜬 **개밥바라기별**보다도 **고즈넉하겠**다. 길은 어디서나 열리고 사람은 또 스스로 길이다. 서늘하고 뜨겁고 교묘하다. 난 아직도 들에서 마을로 내려서는 게 **좋으나, 그 어떤 길엔들 노래 없으랴**. 그 노래가 세상을 푸르게 밝혀리.

- 고재중, 「들길에서 마을로」 -

(나)

**아무도 찾지 않으려네**

내 살던 집 **뿔마루**에 앉으면

**벽에는 여직도 쥐오줌 얼룩져 있으리**

담 너머로 늙은 수유나뭇잎 날리거든

**두레박**으로 우물물 한 모금 떠마시고

가윗소리 요란한 **옛장수** 되어

㉠ **고추잡자리** 새빨간 **노을길** 서성이려네

감석 깔린 **장길**은 피하려네

내 좋아하던 **고무신** 집 딸아이

수틀 끼고 앉았던 **가갯방**도 피하려네.

두엄 더미 수북한 **쇠전** 마당을

㉡ **균 줄기** 찾는 **허망한** **균전꾼**되어

초저녁 하얀 달 보며 **거닐려**네

**장국밥**으로 허기를 채우고

읍내로 가는 **버스**에 **오르려**네

쫓기듯 **도망치듯** 살아온 **이에게**만

삶은 때로 **애달기만 하리**

긴 능선 검은 하늘에 **박힌** 별 보며

길 잘못 든 **나그네** 되어 **떠나려**네.

- 신경림, 「고향길」 -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물의 의인화를 통해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시간의 흐름과 시선 이동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단호한 어조로 비극적인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감각적 이미지를 이용하여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음성 상징어를 통해 성장하는 벼들의 생동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② ㉡은 방언과 언어유희를 활용하여 노을이 지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은 청각의 촉각화를 통해 노인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고추잡자리와 노을의 색채 이미지를 중첩시켜 대상에 대한 애상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⑤ ㉢은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여 꿈을 좇았으나 이루지 못한 화자의 상황을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시에서 농촌은 향토적 이미지가 가득한 공간이지만, 농촌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는 화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가령, 자연의 건강함에 주목한 화자는 농촌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함께 농촌을 따뜻하고 넉넉한 공간으로 본다. 반면에 삶의 터전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농촌을 떠난 화자는 궁핍하고 쇠락한 이미지의 농촌을 회피하려는 자세를 보인다. 이에 전자의 화자가 농촌에 정착해 희망적 미래를 꿈꾸는 삶의 모습을, 후자의 화자는 농촌 현실에 대한 비애감과 유랑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 준다.

- ① (가)는 '망초꽃', '쭉독새', '도랑물'의 시어를 통해, (나)는 '뿔마루', '두레박', '옛장수'의 시어를 통해 농촌의 향토적 이미지를 환기하고 있군.
- ② (가)는 '마을 쪽을 안 돌아볼 수 없다'를 통해 농촌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나)는 '아무도 찾지 않으려네'를 통해 농촌을 회피하려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군.
- ③ (가)는 '한 생애의 백발은 나의 꿈'을 통해 화자가 농촌에서의 정착을 꿈꾸고 있음을, (나)는 '나그네 되어 떠나려네'를 통해 화자가 '나그네'처럼 유랑하는 삶을 꿈꾸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군.
- ④ (가)는 '몇몇 집에서 오르는 연기가 밤꽃보다 환하다'하는 것을 통해 농촌이 싱그럽고 건강한 곳임을, (나)는 '벽에는 여직도 쥐오줌 얼룩져 있다'는 것을 통해 농촌이 궁핍한 곳임을 보여 주고 있군
- ⑤ (가)는 '어떤 길엔들 노래 없으랴'를 통해 화자가 자신의 미래

를 희망적으로 보고 있음을, (나)는 '쫓기듯 도망치듯 살아온 이'를 통해 화자가 자신의 현실에 대해 비애를 느끼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군.

## 들길에서 마을로(교재중)

## 1. [출제 의도] 작품간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② (가)에서는 해질녘 들길의 풍경을 보던 화자가 시선을 마을로 옮기고 있으며, 시간적 배경 또한 해질녘에서 개밥바라기벌이 뜨는 저녁으로 바뀌고 있다. (나) 또한 자신이 살던 집 뒷마루, 장길, 가갯방 등으로 시선의 옮겨가며 정서를 표현하고 있으며, 시간적 배경 또한 노을이 지던 길에서 하얀 달이 뜨는 초저녁으로, 또 다시 검은 하늘이 뜨는 깊은 밤으로 변경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에는 자연물을 감각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자연물을 살아있는 사람처럼 의인화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의인화를 통해 냉소적 태도가 드러난 부분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③ (가)는 현재의 상황을 비극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나)는 현재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긴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보다는 회피하려는 태도가 두드러진다. ④ (가)는 들길에 선 자연풍경을 칭찬하며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나 (나)에는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제시되지 않았다. ⑤ (나)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찾아볼 수 있지만, (가)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2. [출제 의도] 작품에 나타난 시형의 표현을 파악한다.

③ 울음이라는 정감적 이미지를 시리게 우는 서러움으로 표현하면서 축국새의 울음이 주는 서러움과 슬픔을 환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노인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쭉쭉쭉'은 음성 상징어로서, 이를 통해 벼들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등음 반복으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② '봄새'는 노을을 일컫는 방언인데, 화자는 봄새가 야단스럽고 부산스럽다는 '복새끼'와 관련지어 언어유희적으로 표현한다. 한편 노을이 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④ 고추잠자리와 노을길의 색인 붉은 색을 '새빨간'이라는 색채어를 통해 중첩적으로 제시해 길에서 서성이는 화자의 애상적 정서를 제시하고 있다. ⑤ 화자는 무언가를 좇아 헤맸지만 찾지 못하고 유랑하는 자신의 처지를 금을 찾아다니는 '금전꾼'이라는 상징적 시어로 제시하고 있다.

## 3. [출제 의도] 외재적 증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③ <보기>에서 농촌에 대해 화자는 정착과 유랑의 삶의 태도를 드러낸다고 하였다. (가)에서는 농촌에 사는 백발 노인처럼 자신도 그러한 삶을 농촌에서 살고 싶다고 하며 정착에 의지를 드러내지만, (나)에서는 어쩔 수 없이 유랑하는 나그네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그네처럼 살고 싶은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 한국의 현대시에는 농촌의 향토적 이미지가 제시된다고 하였다. 향토적 이미지는 고향이나 시골의 정취가 담긴 이미지를 말하는데, (가)에서는 '쭉독새'나 '도랑물'과 같은 시어를 통해, (나)에서는 '두레박', '옛장수' 등의 시어를 통해 향토적 이미지를 환기하고 있다. ② <보기>에서 화자의 상황이나 처지에 따라 농촌에 대한 각기 다른 태도를 보인다고 했는데, (가)의 화자가 '마을 쪽을 안 돌아볼 수 없다'며 마을의 여러 곳을 보고 싶은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과 달리, (나)의 화자는 농촌에 가더라도 '아무도 찾지 않으려네'라며 농촌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 ④ <보기>에서 자연의 건강함에 주목한 화자라면 농촌을 따뜻하고 넉넉한 공간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은 화자라면 쇠락하고 궁핍한 곳으로 본다고 했다. (가)의 화자는 마을 안쪽의 집에서 오르는 연기가 밤꽃보다 환하다며 농촌에 대해 싱그럽고 건강한 모습으로 묘사하지만, (나)에서는 벽에는 아직도 쥐오줌이 얼룩진 궁벽한 곳으로 보고 있다. ⑤ <보기>에서는 화자에 따라서 농촌에 정착해 희망찬 미래를 꿈꾸거나 혹은 현실에 비애감을 느낀다고 제시되었다. (가)의 경우 농촌에서의 삶에 만족하면서도 어느 곳에서도 길은 열리고 노래가 세상을 밝힐것이라며 희망찬 미래를 전망하는 반면, (나)의 경우 유랑하며 살아온 자신의 삶을 '쫓기듯 도망치듯 살아온 이'처럼 보며 '애답다'라고 정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나희덕) - 수능특강 104p 관련>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5-6A 고3 평가원>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ㄱ [A] └─┘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ㄴ [B] └─┘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니다	ㄷ [C] └─┘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ㄹ [D] └─┘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 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	ㅁ [E] └─┘

31. 윗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어체를 사용하여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② 지시어를 반복하여 중심 소재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 ③ 도치된 문장으로 마무리하여 상황의 긴박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의인법을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색채어를 활용하여 신화적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32.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대상에 대한 태도가 드러나며 시상이 촉발되는 부분으로, 그중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은 화자가 대상에 대해 거리감을 가지게 되는 이유를 나타낸다.
- ② [B]는 대상에 대한 감정이 행동으로 구체화되는 부분으로, 그중 '멀리로 멀리로만'은 화자가 대상을 피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 ③ [C]는 대상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부분으로, 그중 '눈부셔 눈부셔'는 화자가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수천의 빛깔'을 발견 하는 순간을 강조한다.
- ④ [D]는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나타나는 부분으로, 그중 '피우고 싶은 꽃빛'은 화자가 외로움을 이겨 낸 상황을 나타낸다.
- ⑤ [E]는 대상에 대한 깨달음 이후의 상황이 나타나는 부분으로, 그중 '조금은 심심한 얼굴'은 화자가 가까이에서 발견한 대상의 또 다른 모습을 나타낸다.

33. 윗글의 ㉠과 <보기>의 ㉡를 비교하여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내 창작도 태반은 여기서 되었다. 직접 이 철학자를 두고 짜여진 것은 아직 한 편도 없으나, 이 철학자와 벗하여 상(想)이 닳았던 것만은 사실이다. 상이 막히어 붓대가 내키지 않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책상을 떠나 이 철학자의 그늘 밑으로 나왔다. 그리하여 그 밑에서 고요히 눈을 감고 뒷짐을 지고 거닐면서 매듭진 상을 골라서 풀곤 했다. 생각이 응색해도 이 그늘을 찾았고 독서와 붓놀음에 지친 피로가 몸에 미칠 때에도 이 그늘을 찾았다. 실로 이 늙은 철학자 밤나무는 나에게 있어 내 생명의 씨를 밝혀 주는 씨앗터였다.

이러한 씨앗터를 내 이제 떠나 살게 되니 해마다 버들잎에 기쁨이 지면 이 늙은 철학자의 그늘 밑이 더할 수 없이 그리워진다. 인제 그 밤나무에도 일이 아마 푸르렀겠지. 비바람에 고삭은 가지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안부가 지극히 알고 싶어지고, 그 밑에서 고요히 눈을 감고 사색에 잠겨보고 싶어진다.

더욱이 생각의 가난에 원고를 자꾸만 찢게 될 땐, 어쩐지 그 ㉡ 그늘 밑 자연석 위에 잠깐만 앉아 눈을 감아 보아도 매듭진 상의 눈앞은 흰히 트여질 것만 같게 그 품속이 생각난다.

- 계용묵, 「울정기(栗亭記)」 -

- ① ㉠은 화자의 기대에 어긋나는 장소이고, ㉡는 필자의 휴식을 방해하는 장소이다.
- ② ㉠은 화자가 복숭아나무의 영향을 받았던 장소이고, ㉡는 필자가 밤나무에 영향을 주었던 장소이다.
- ③ ㉠은 화자가 복숭아나무에 대해 사색에 잠겼던 장소이고, ㉡는 필자가 밤나무에 대한 글을 썼던 장소이다.
- ④ ㉠은 복숭아나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이고, ㉡는 밤나무에 대한 필자의 고민이 저절로 해소되는 장소이다.
- ⑤ ㉠은 곁에 있는 복숭아나무에 대한 화자의 친밀감을, ㉡는 떠난 밤나무에 대한 필자의 그리움을 강화하는 장소이다.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나희덕) <15-6A 고3 평가원>

[31-33]

31. [출제 의도] 표현상 특징 파악

㉔ 1연 2행을 보면 화자는 대상을 '그 복숭아나무'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는 시적 감흥을 촉발시키는 복숭아나무가 일반적 대상이 아니라 '그 복숭아나무'라는 특정한 대상임을 부각하는 효과를 낸다. 사상이 전개될수록 '그'라는 지시어는 '그 나무', '그 복숭아나무' 등으로 반복적으로 표현되어 독자에게 시적 대상이 특정한 '그 복숭아나무'임을 끊임없이 환기한다.

**[오답 풀이]** ㉑ 이 작품은 규모가 거대하고 성대할 때 조성되는 웅장한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이 시에 사용된 '-습니다'라는 경어체 표현은 '그 복숭아나무'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차분히 드러내면서 고백적인 어조를 형성하는 데 기능하고 있다. ㉓ 2연을 도치된 문장으로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다. 하지만 작품의 시적 상황은 긴박한 분위기를 띠지 않고 있다. 도치된 문장으로 마무리된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은 시적 여운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㉕ 이 작품에서 '그 복숭아나무'는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인화된 대상이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㉖ '흰꽃', '분홍꽃' 등에서 색채어 사용을 찾아볼 수 있으나 이것을 신화적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2. [출제 의도] 구절의 의미 파악

㉑ [D]에서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나타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한 지적이다.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이라는 구절과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이라는 구절에 드러난 '그 나무'는 분명 '흰꽃'과 '분홍꽃'으로만 인식된 '그 나무'와 구별되기 때문이다. '그 나무'가 상징하고 있는 바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우고 싶은 꽃빛'이라는 구절을 화자가 외로움을 이겨 낸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 '그 나무'는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것으로 보아 '피우고 싶은 꽃빛'은 대상의 이러한 다양한 마음과 관련지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오답 풀이]** ㉑ [A]의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시다'라는 구절에서 '그 복숭아나무'에 대해 거리를 두는 화자의 태도를 읽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복숭아나무'가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존재였기 때문으로 드러난다. ㉒ [B]에서는 '그 복숭아나무'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으로 인해 화자가 그 나무를 피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 나무의 '그늘'에 앉지 않고,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쳐 가는 모습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에 대한 감정이 행동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부분이다. ㉓ [C]에서 '그 복숭아나무'는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을 가진 존재로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B]에서 그 나무는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있는 존재였다. 따라서 [C]는 대상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부분이며, '눈부서'라는 표현은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는 순간을 감각적으로 드러내면서 부각하고 있는 부분이다. ㉕ [E]에서 '흩어진 꽃잎들'이라고 했으므로 '그 복숭아나무'의 꽃잎들은 이제 나무에 피어 있지 않다.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는데, 정작 그 꽃잎들은 이제 저버린 것이다. 따라서 '조금은 심심한 얼굴'은 '그 복숭아나무'의 또 다른 모습으로서, 꽃잎이 진 '그 복숭아나무'를 가리킨다.

33. [출제 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㉓ 화자가 '그 복숭아나무'에 대해 깨닫기 전에는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 복숭아나무'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난 후에는 그 '그늘'에서 화자가 '저녁이 오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다. 따라서 ㉑은 복숭아나무에 대한 화자의 친밀감이 강화되는 장소로 볼 수 있다. ㉒에서 필자는 '상이 막혀서 붓대가 내키지 않을 때', '생각이 웅색할 때', '피로가 몸에 미칠 때' 등 어떤 '매듭진 상을 풀라서 풀곤 했'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밤나무를 '내 생명의 씨를 밝혀 주는 씨앗터'로 여기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곳을 '떠나 살게 되니' 밤나무에 대한 그리움이 절실해지고 있다.

**[오답 풀이]** ㉑ ㉓을 화자의 기대에 어긋나는 장소로 파악하기보다는 ㉑에서 화자가 휴식을 취하며 친밀감을 느끼고 있는 장소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 ㉒는 필자의 휴식을 방해하는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필자에게 안식처를 제공하여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장소이다. ㉔ ㉑에서 화자가 복숭아나무에 대한 거리감을 회복하고는 있으나 이것을 복숭아나무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㉒는 필자가 밤나무에 영향을 주었던 장소가 아니라 밤나무가 필자에게 영향을 주는 장소로 감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㉓ ㉒는 필자가 밤나무에 대한 글을 썼던 장소가 아니다. '직접 이 철학자를 두고 짜여진 것은 아직 한 편도 없으니'라고 서술되어 있다. ㉔ ㉑은 복숭아나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가 아니다. 이 작품은 복숭아나무가 의인화되어 있으나 복숭아 나무의 심리와 행동보다는 이를 바라보는 화자의 심리와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㉕ 아래에서 필자가 다양한 고민을 해소하고는 있으나 그러한 고민은 밤나무에 대한 것들이 아니다. 필자의 고민은 주로 창작의 고민과 그것으로 인한 피로감에서 오는 것들이다.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나희덕) - 수능특강 104p 관련>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①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  
만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②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③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

(나)

부엌에서는  
언제나 술 피는 냄새가 나오.  
한 여자의  
젊음이 삭아 가는 냄새  
한 여자의 설움이  
찌꺼를 끓이고  
한 여자의 애모가  
간을 맞추는 냄새  
부엌에서는  
④ 언제나 바삭바삭 무언가  
타는 소리가 나오.  
세상이 열린 이래  
똑같은 하늘 아래 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큰방에서 큰소리 치고  
한 사람은  
종신 동침 계약자, 외눈박이 하녀로  
부엌에 서서  
뜨거운 찻농을 제 발등에 붓는 소리  
부엌에서는 한 여자의 피가 삭은  
빙초산 냄새가 나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모르겠어요.  
촛불과 같이  
나를 태워 너를 밝히는  
저 천형의 덜미를 푸는  
소름 끼치는 마고할멈의 도마 소리가  
똑똑히 들려요  
수줍은 새악시가 홀로  
허물 벗는 소리가 들려와요  
⑤ 우리 부엌에서는...  
- 문정희, 「작은 부엌 노래」 -

-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간의 이동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역설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③ 경어체를 사용하여 차분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④ 인간사와 자연사를 대비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⑤ 가상의 상황을 통해 자기 반성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② ㉡은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깨달음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③ ㉢은 도치법을 활용하여 독자에게 시적 여운을 주고 있다.  
 ④ ㉣은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삶의 고단함을 표현하고 있다.  
 ⑤ ㉤은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화자의 의도를 은폐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은 여성해방과 자연해방을 더 붙여 추구하는 이론을 말한다. 에코페미니즘은 억압적인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과 자연, 남성과 여성 모두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 이론은 1980~90년대 한국 현대시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에코페미니즘을 표방한 대부분의 시에서는 일상 공간을 배경으로 가부장적 제도 하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제시하였다.

- (가)에서 '나무'가 '여러 겹의 마음'을 지녔다고 말한 것은 대상의 진정한 모습을 아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려 주고 있군.
- (나)에서 '여성'을 '외눈박이 하녀'라고 말한 것은 힘든 가사 노동을 해야만 하는 여성들의 고통을 알려 주고 있군.
- (가)에서 '나무'가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은 인간과 자연 사이에 거리감이 존재하고 있음을, (나)에서 '우리 부엌'이 공간적 배경인 것은 화자와 대상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는 사실을 드러내는군.
- (가)에서 '복숭아나무'를 보고 '가깝게 가고 싶지 않다'고 한 것은 인간이 자연을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나)에서 '부엌에서' 나는 냄새를 '여자의 젊음과 연관 짓는 것은 가사 노동이 여성을 억압하고 있음을 드러내는군.
- (가)에서 '저녁이 오는 소리'를 '가만히 들었다'는 것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나)에서 '허물 벗는 소리가 들린다고 한 것은 여성이 주체적인 존재로 탄생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군.

## 그 복숭아나무 결으로(나희덕)

## 1. [출제 의도] 작품의 구성 원리를 정확히 이해한다.

㉓ (가)와 (나) 모두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다소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화자는 자신이 관찰한 내용을 독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는 모두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② (가)는 역설적 인식을 기반으로 화자의 깨달음을 서술하고 있지만, (나)는 역설적 표현을 특별히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④ (가)에서는 '복숭아나무'라는 자연물을 이용하여 대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기까지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지만, 인간과 자연을 대비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에서는 인간과 자연을 대비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⑤ (가)와 (나) 모두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자기 반성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 2. [출제 의도] 서술적 특징을 중심으로 작품 간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㉔의 밑줄표는 화자의 말을 숨기려는 의도이기보다는 오히려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을 더 강조해 주는 효과를 지닌 표현 방식이다. 비록 화자가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에서의 서술을 통해 독자들은 화자가 말하고 싶은 바를 충분히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㉔의 '흰 꽃과 분홍 꽃'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한 표현으로 화자가 판단한 나무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로 사용되고 있다. ② ㉔은 '눈부서'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발화함으로써, 화자가 대상의 본질을 깨달았을 때 느낀 바를 강조하고 있다. ③ ㉔은 '저녁이 오는 소리들'이라는 목적어를 서술어의 뒤로 보내는 방식의 도치법을 활용함으로써 여운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④ ㉔은 마치 여성의 고단한 삶이 무언가 타고 있는 것 같다고 표현하면서, '바삭바삭'이라는 시어를 통해 청각적으로 이미지화하고 있다.

## 3. [출제 의도] 주어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한다.

㉓ (가)의 화자가 '나무'라는 시적 대상에 관한 묘사를 시작할 때에는 대상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화자는 '나무'가 사실은 '수천의 빛깔'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는 인간이 자연이라는 다른 존재를 이해해 가는 과정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화자는 관찰 대상이 간단한 관찰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깨달음으로써 '여러 겹의 마음'의 의미를 말하고 있다. ② (나)의 화자는 '외눈박이 하나'와 같은 표현을 통해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가)의 화자는 '나무'의 입장을 이해해가는 방식으로 태도 변화를 보이며, (나)의 화자는 '한 여자'를 관찰하는 입장인 듯 보이지만 그 심정을 잘 이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현 사회 구조에서 억압받는 자연과 여성에 관한 공감 의식을 드러내는 서술 방식이라 할 수 있다. ⑤ (가)의 화자는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나)의 화자는 '허물 벗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을 통해 여성이 주체적이고 독립적 존재로 탄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